

1. (가) 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은?

[1점]



- ① 주로 동굴이나 막집에 거주하였다.
- ② 철제 농기구를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 ③ 소를 이용한 깊이갈이가 일반화되었다.
- ④ 계급이 없는 평등한 공동체 생활을 하였다.
- ⑤ 반달 돌칼을 사용하여 곡물을 수확하였다.

정답: ⑤

* 청동기 시대의 생활 모습

청동기 시대 유적으로는 부여 송국리(집터, 돌널무덤과 독무덤 유적, 비파형동검, 송국리식 민무늬 토기)가 가장 유명하고 그 외에 여주 혼암리(탄화미 발견), 서천 화금리 유적(탄화미 창고 발견), 울산 검단리(환호형 촌락터) 등이 유명하다.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 유물로는 곡식의 이삭을 자르는데 사용된 반달 돌칼, 바퀴날 도끼, 홈자귀 등의 석기와 비파형 동검, 의식용으로 사용된 거친무늬 청동 거울 등의 청동기, 그리고 미송리식 토기(고조선과 관련된 유물), 민무늬 토기(대표 토기), 붉은 간토기 등의 토기가 있다.

청동기 시대는 생산력의 증가에 따라 인구가 늘고 잉여 생산물이 생기자, 힘이 강한 자가 이것을 개인적으로 소유하였다. 생산물의 분배와 사유화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빈부의 격차와 계급의 분화를 촉진하였으며 국가의 성립까지 이어졌다(군장국가). 이러한 계급의 분화는 죽은 뒤에까지도 영향을 끼쳐 무덤의 크기와 켜묻거리의 내용에 반영되었고,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무덤 형태인 고인돌은 많은 인원을 동원시킬 수 있는 계급이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

① 구석기인들은 이동에 편한 동굴이나 강가의 막집에서 살았다.

② 철기 시대에 들어서 철제 무기와 철제 농기구를 제작하여 사용하며 전투력과 생산력이 크게 증대되었다.

③ 고려 시대에는 소를 이용한 깊이갈이가 일반화되었다.

④ 생산력이 미약한 구석기~신석기인들은 계급없는 평등한 공동체 생활을 하였다.

2.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대군장이 없고, 한(漢) 이래로 후(侯)·읍군·삼로가 있어서
하호를 통치하였다. 그 풍속은 산천을 중요시하여 산과 내마다
각기 구분이 있어 함부로 들어가지 않는다. 동성끼리는 결혼하지
않는다.
-『삼국지』동이전-

- ① 연맹 왕국으로 발전하였다.
- ② 낙랑과 왜에 철을 수출하였다.
- ③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
- ④ 혼인 풍습으로 민며느리제가 있었다.
- ⑤ 여러 가(加)들이 별도로 사출도를 주관하였다.

정답: ③

* 초기 국가 동예

함경도 및 강원도 북부의 동해안에 위치한 옥저와 동예는 변방에 치우쳐 있어 선진 문화의 수용이 늦었으며, 일찍부터 고구려의 압력을 받아 크게 성장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국왕이 없고, 각 읍락에는 읍군이나 삼로라는 군장이 있어서 자기 부족을 다스렸으나, 이들은 큰 정치 세력을 형성하지 못하여 연맹왕국으로 발전하지 못하였다.

동예는 토지가 비옥하고 해산물이 풍부하여 농경, 어로 등 경제 생활이 윤택하였다. 특히, 명주와 삼베를 짜는 등 방직 기술이 발달하였다. 특산물로는 단궁이라는 활과 과하마, 반어피 등이 유명하였다. 동예에서는 매년 10월에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 그리고 폐쇄적인 씨족 사회의 전통이 매우 강하여 족외혼(族外婚)을 엄격하게 지켰으며, 각 부족의 영역을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게 하였다. 다른 부족의 생활권을 침범하면 책화라 하여 노비와 소, 말로 변상하게 하였다.

② 변한과 이를 계승한 가야는 철이 많이 생산되어 낙랑과 왜 등에 수출까지 하였다.

④ 옥저에는 장래에 혼인할 것을 약속하면, 여자가 어렸을 때에 남자 집에 가서 성장한 후에 남자가 예물을 치르고 혼인을 하는, 일종의 매매혼인 민며느리제가 있었다.

⑤ 부여에는 왕 아래에 가축의 이름을 딴 마가, 우가, 저가, 구가와 대사자, 사자 등의 관리가 있었다. 이들 가(加)는 저마다 따로 행정 구획인 사출도를 다스렸다.

3. 밑줄 그은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진흥왕 때 신라에 복속되었다.
- ② 나당 연합군에 의해 멸망하였다.
- ③ 대가들이 사자, 조의, 선인을 거느렸다.
- ④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 진대법을 시행하였다.
- ⑤ 박, 석, 김의 3성이 교대로 왕위를 계승하였다.

정답: ①

* 대가야에 대하여

<삼국사기> 지리지에는 대가야는 시조 이진 아시왕(伊珍阿岐王)으로부터 도설지왕(道設智王)까지 16대 520년간 존속했다고 하나 확실하지 않다.

금관가야를 중심으로 하는 초기 가야연맹은 4세기 후반 이후 고구려의 침입으로 큰 타격을 입고 세력이 약화되면서(백제도 위축됨) 신라의 세력권으로 들어갔다.

반면 5세기 이후에는 고령·합천 등 경상도 내륙 산간지방의 농업에 유리한 입지조건과 제철기술을 바탕으로 성장하던 소국 반파국은 5세기 후반에 새로이 시조설화를 만들며 대가야를 표방하며 합천·거창·함양·산청·아영·하동·사천 등지를 포괄하는 후기 가야연맹의 맹주로서 국제사회에도 등장하였다.

479년에 가야왕 하지(荷知)의 이름으로 남제(南齊)에 사신을 보내 작호를 받았고, 481년에는 백제·신라와 동맹하여 고구려를 침입하였다. 5세기 후반부터 6세기 전반까지 진행된 급속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대가야는 백제와 신라라는 강대국 사이에서 활동의 폭이 매우 제한되었다. 554년 백제와 연합하여 신라를 공격하였으나 크게 패하고, 오히려 562년 신라 진흥왕 때에 복속되었다.

대가야는 정치적으로 삼국보다 발전하지 못했지만, 문화적으로는 가야금을 제작하고 음악을 정리하는 등 높은 문화수준을 보유했다. 또한 지산동 고분을 비롯하여 본관동·중화동·양전동·종암동·괘빈동 등 고령지역에 분포한 유적지에서 출토되는 금동관, 판갑옷과 투구 등 많은 유물들은 가야연맹의 맹주인 대가야의 발전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③, ④ 고구려는 왕 아래에 상가, 고추가 등의 대가들이 있었으며, 각기 사자, 조의, 선인 등 관리를 거느렸고, 고국천왕(179~197) 때 국상 을파소의 건의로 먹을거리가 모자란 봄에 농민들에게 곡식을 빌려 주었다가 가을에 추수한 것으로 갚게 하는(춘대추납) 진대법을 실시하였다(194).

⑤ 신라는 거서간, 차차웅, 이사금 시대에 박, 석, 김씨가 왕위를 교대로 계승하였다.

4. (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3점]

(가) 왕이 태자와 함께 정예군 3만 명을 거느리고 고구려를 침범하여 평양성을 공격하였다. 고구려왕 사유(斯由)가 필사적으로 항전하다가 날아오는 화살에 맞아 죽었다. 왕이 병사를 이끌고 물러났다.

- 『삼국사기』 -

(나) 고구려왕 거련(巨璉)이 병사 3만 명을 거느리고 와서 한성을 포위하였다. 왕은 상황이 어렵게 되자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기병 수십 명을 거느리고 성문을 나가 서쪽으로 달아났는데, 고구려 병사가 추격하여 왕을 살해하였다.

- 『삼국사기』 -

- ① 신라의 법흥왕이 불교를 공인하였다.
- ② 백제의 문주왕이 웅진으로 천도하였다.
- ③ 고구려의 태조왕이 옥저를 복속시켰다.
- ④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이 백제를 공격하였다.
- ⑤ 백제와 고구려가 동맹을 맺고 신라에 대항하였다.

정답: ④

* 고국원왕의 전사(371)와 개로왕의 전사(475) 사이의 역사적 사실

고구려는 태조왕(53~146) 때에 동해안으로 진출하여 물자가 풍부하고 토지가 비옥한 (동)옥저를 정복하였고(56), 요동으로도 진출을 꾀하여 선비족과 함께 요동 태수 채풍을 죽이기도 하였다(121).

고구려는 2세기 후반 고국천왕(179~197) 때에 부족적인 전통을 지녀 온 5부가 행정적 성격의 5부로 개편되었고, 왕위계승도 형제상속에서 부자상속으로 바뀌었으며, 국상을 파소의 건의로 진대법(194)을 실시하여 빈민을 구제하였다. 동천왕(227~248) 때에는 요동을 놓고 위나라와 갈등하며 위나라 장수 관구검의 침입으로 인한 수도가 함락되는 위기도 있었다(244~245).

고구려는 4세기에 이르러 중원의 5호 16국 시대의 혼란을 틈타 활발하게 대외 팽창을 꾀하였다. 미천왕(300~331) 때에 마지막 한(漢) 군현인 낙랑군(313), 대방군(314)을 완전히 몰아낸 고구려는 압록강 중류 지역을 벗어나 남쪽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4세기 중.후반 고국원왕(331~371) 때에 서북쪽의 전연 모용황의 수도 침략(342)과 남쪽의 백제 근초고왕의 침략을 받아 평양성에서 국왕이 전사(371)하는 국가적 위기를 맞았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소수림왕(371~384)은 중국 북조 전진으로부터 불교를 수용하고, 태학을 설립(372)하여 인재를 길렀으며, 율령을 반포(373)하여 국가조직을 정비하였다. 이로써 고구려는 중앙 집권 체제를 더욱 강화하여 새로운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소수림왕 때의 내정개혁을 바탕으로 광개토대왕(391~412)은 백제를 공격하여 한강 이북의 지역을 점령하고, 서북쪽의 거란과 선비족의 후연을 격파하고 동부여와 동쪽의 말갈을 굴복시켜 요동 지방을 포함한 만주 대부분의 땅을 차지하였다. 또한 백제가 왜를 끌어들여 신라에 침입해오자, 신라의 군사원조 요청을 받아들여 군사 5만을 보내어 왜를 격퇴하였다(400).

장수왕(413~491)은 414년 광개토대왕릉비를 건립하여 부왕의 업적을 기리고 평양천도(427)와 남진정책을 추구하였다. 그 결과 개로왕(부여경)의 백제 수도 한성을 급습하여 함락시키고(475), 죽령 일대에서 남양만을 연결하는 선까지 그 판도를 넓혔다.

① 신라는 법흥왕 때에 이차돈의 순교를 통하여 불교를 공인하였다(527).

② 장수왕에 의해 수도 한성을 함락당하자 백제 문주왕은 금강 유역의 웅진(공주)으로 도읍을 옮기었다(475).

⑤ 백제 의자왕이 즉위하고(641), 고구려의 연개소문이 정변으로 집권하며(642) 당과 신라를 견제하기 위하여 동맹 수준으로 가까워졌다.

5. 다음 기획전에 전시될 문화유산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점]

특별 기획전

문화유산을 통해 보는 백제의 도교 문화

도교는 삼국 시대에 전래되어 우리나라 문화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우리 △△박물관에서는 백제의 도교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특별 기획전을 마련하였습니다. 많은 관람 바랍니다.

■ 기간: 2019년 ○○월 ○○일~○○월 ○○일

■ 장소: △△박물관 기획 전시실

<보 기>

① 가, 나

④ 나, 라

② 가, 다

⑤ 다, 라

③ 나, 다

정답: ④

* 백제의 도교 문화 유산

삼국에는 도교도 전래되어 산천 숭배나 신선 사상과 결합하여 귀족 사회를 중심으로 환영을 받았다.

백제의 산수무늬 벽돌은 자연과 더불어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담고 있으며, 백제 금동 대향로는 신선들이 사는 이상 세계를 형상으로 표현하였다.

고구려 고분에 그려진 사신도는 도교의 방위신을 그린 것으로, 죽은 자의 사후 세계를 지켜 주리라는 믿음을 표현하고 있다.

㉠ 김해 대성동 57호분 출토 종장 판갑옷(금관 가야)

㉡ 백제 산수무늬 벽돌

㉢ (국보 119호): 경상남도 의령에서 발견된 고구려 불상(고구려의 연호가 기재). 정수리 위에는 큼직한 육계가 있으며, 소라 모양의 보발(寶髮)이 있는데, 이는 삼국시대의 불상에서는 보기 드문 예로 중국 북조의 영향을 받은 듯하다.

㉣ 백제 금동 대향로

6. 밑줄 그은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2점]

○ 왕의 이름은 명농이니 무령왕의 아들이다. 지혜와 식견이 뛰어나고 일을 처리함에 결단성이 있었다. 무령왕이 죽고 왕위에 올랐다.

—『삼국사기』—

○ 왕이 신라군을 습격하고자 몸소 보병과 기병 모두 50명을 거느리고 밤에 구천(狗川)에 이르렀다. 신라의 복병이 나타나 그들과 싸우다가 혼전 중에 왕이 신라군에게 살해되었다.

—『삼국사기』—

- ① 익산에 미륵사를 창건하였다.
- ②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수용하였다.
- ③ 신라를 공격하여 대야성을 점령하였다.
- ④ 사비로 천도하고 국호를 남부여로 고쳤다.
- ⑤ 고흥으로 하여금 서기를 편찬하게 하였다.

정답: ④

* 백제 성왕의 업적

백제 성왕(523~554)은 무령왕(501~523)의 아들로 수도를 비좁은 웅진성에서 넓은 별관인 사비성(부여)으로 옮기고, 국호를 남부여로 고쳤다(538). 이 때, 중앙에 22개의 실무 관청을 두고, 수도에 5부, 지방에 5방을 두어 왕권의 강화를 꾀하였다. 그리고 불교를 장려하고, 중국과 문물을 교류하였으며, 왜와도 우호적인 관계를 가져 불교를 비롯한 여러 문물을 전해 주었다.

이를 바탕으로 성왕은 신라와 힘을 합하여, 이전에 고구려에 빼앗겼던 한강 유역을 되찾을 수 있었다(551). 이리하여 백제는 오랜 숙원을 한때 이루었으나, 곧 동맹국인 신라의 공격을 받아 한강 유역의 땅을 신라에 빼앗겼다(553).

이에 성왕은 친히 군사를 이끌고 신라를 공격하였으나, 관산성(충북 옥천)에서 전사하여 중흥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554).

① 익산 미륵사는 서동으로 유명한 백제 무왕(600~641)이 그 부인 선화공주(신라 진평왕의 딸)의 기원에 따라 창건되었다고 전해졌었다(601). 그러나 2009년 미륵사지 서탑 해체 과정 중 발견된 봉안 기록에 따르면 좌평 사택적덕의 딸 출신인 백제인 왕비가 건립을 발원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② 백제는 침류왕 때에 중국 남조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여 중앙 집권 체제를 사상적으로 뒷받침하였다(384).

③ 백제 의자왕(641~660)이 즉위하면서부터 신라와의 싸움이 보다 격렬해져 신라의 대야성을 비롯한 40여 개의 성을 빼앗았다(642).

⑤ 백제의 최전성기를 이룬 근초고왕(346~375) 때에 박사 고흥이 역사서인 '서기(書記)'를 편찬하였으나(375), 현재 전해지지 않는다.

7.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답사 보고서

■ 주제: (가)의 유적을 찾아서
 ■ 기간: 2019년 ○○월 ○○일~○○월 ○○일
 ■ 답사지: 러시아 연해주 쿡사로프카성 일대

1. 쿡사로프카 평지성 내부의 온돌 유적




이 유적은 전체 둘레가 1,645m에 이르는 대규모 성곽으로, 내부 건물지에서 고구려 계통의 온돌 시설과 토기 등이 발굴되었다. 이러한 유적과 유물은 해동성국으로 불린 (가)이/가 고구려의 문화를 계승하였음을 보여준다.

2. 쿡사로프카 성벽

- ① 지방관 감찰을 위해 외사정을 파견하였다.
- ② 지방을 통제하기 위해 22담로를 설치하였다.
- ③ 5경 15부 62주의 지방 행정 제도를 갖추었다.
- ④ 집사부 외 13부를 두고 행정 업무를 분담하였다.
- ⑤ 상수리 제도를 시행하여 지방 세력을 견제하였다.

정답: ③

* 발해의 지방제도

대조영이 고구려 유민과 말갈인들을 규합하여 698년 동모산에서 건국한 발해는 북쪽으로는 헤이룽강, 동쪽으로는 연해주, 서쪽으로는 요동, 남쪽으로는 영흥 지방에까지 이르렀으며, 고구려의 옛땅을 대부분 되찾아 선왕 때에 5경 15부 62주의 지방체제를 완성하였다. 중국에서는 이러한 발해를 '동쪽의 융성한 나라'라는 뜻을 가진 '해동성국'이라고 불렀다. 전성기 때에 해동성국이라 불리웠으며, 일본에 보낸 국서에 고려 또는 고려국왕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사실이라든지 문화의 유사성으로 보아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였다.

특히, 상경성과 연해주 크라스키노 등 발해의 주거지에서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난방장치인 온돌이 발견되고 있으며, 묘제에서도 고구려 무덤의 독특한 양식인 모줄임 천장 구조가 보인다(정혜공주묘, 정효공주묘). 정혜공주묘 앞에서 나온 돌사자상은 매우 힘차고 생동감이 있다. 발해의 연꽃무늬 벽돌과 수막새와 치미의 기와 문양은 고구려의 영향을 받아 소박하고 힘찬 모습을 띠고 있다. 상경에 완전한 모습으로 남아 있는 석등과 동경성 출토 이불병좌상에서도 고구려적인 모습을 느낄 수 있다.

①, ④, ⑤ 통일신라기에는 중앙부서로 집사부를 중심으로 13부(병부, 조부, 예부, 승부, 영객부, 위화부, 창부, 공장부, 좌·우 이방부, 사정부, 선부, 사록관, 예작부)를 두었고, 지방제도로 9주 5소경을 두었으며, 지방관을 감찰하기 위해서 외사정을 파견하고, 지방력을 견제하기 위해 이들을 일정 기간 서울에 와서 거주하게 하는 상수리 제도를 실시하였다.

② 웅진 시대의 백제 무령왕(501~523)은 지방의 22담로에 왕족을 파견함으로써 지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다.

8. 밑줄 그은 '이 종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이것은 전라남도 화순군 쌍봉사에 있는 국보 제57호 철갑 선사 승탑입니다. 승려의 사리를 봉안하는 승탑은 이 종파가 수용된 이후 9세기부터 유행하였습니다. 이 종파는 도의 선사가 가지산문을 개창한 이래 9산 선문을 형성하였습니다.



- ① 동경대전을 경전으로 삼았다.
- ② 단군을 숭배의 대상으로 하였다.
- ③ 대성전을 세워 옛 성현에 제사를 지냈다.
- ④ 참선과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자 하였다.
- ⑤ 마음속에 한울님을 모시는 시천주를 강조하였다.

정답: ④

* 선종에 대하여

신라 말에는 경전의 이해를 통하여 깨달음을 추구하는 교종과 달리, 참선과 실천 수행을 통하여 마음 속에 내재된 깨달음을 얻는다는 선종 불교가 널리 확산되었다.

이 땅에 선종을 도입한 공식적인 최초의 승려는 도의 선사로 알려져 있다(821). 선종 9산 중 가지산파를 개창하였다(장흥 보림사).

또한, 선종이 퍼지면서 승려의 사리를 봉안하는 승탑과 탑비가 유행하였다. 팔각원당형을 기본형으로 삼고 있는 승탑과 승려의 일대기를 비에 새겨 세운 탑비는 세련되고 균형감이 뛰어나 이 시기의 조형 미술을 대표한다(쌍봉사 철갑선사 승탑, 연곡사 동부도 등). 이런 승탑과 탑비는 지방 호족의 정치적 역량이 성장하였음을 반영하고 있다.

①, ⑤ 모든 사람이 한울님을 섬길 수 있는 고귀한 존재라는 시천주(侍天主)와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인내천(人乃天) 사상을 강조하는 동학은 '동경대전'을 경전으로, '동담유사'를 포교 가사집으로 삼았다

② 구한말 을사 5적 암살단을 이끌던 나철, 오기호 등은 1909년에 단군 신앙을 받드는 대종교를 창시하였다.

③ 성균관이나 사학·향교 등의 유교 관학 기관은 문묘(공자를 모시는 곳) 및 중국·조선의 선철(先哲)·선현(先賢)을 제사하는 동무(東廡)·서무(西廡)가 소재한 대성전(大成殿) 영역과 명륜당(강당) 및 학생들이 기숙하는 동재(東齋:양반)·서재(西齋:평민)가 있는 명륜당(明倫堂) 영역으로 크게 나누어질 수 있다.

9. (가)에 해당하는 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 ① 몽골에 항전할 때 임시 수도였다.
- ② 정약전이 자산어보를 저술한 섬이다.
- ③ 하멜 일행이 표류하다가 도착한 곳이다.
- ④ 양헌수 부대가 프랑스군을 격퇴한 장소이다.
- ⑤ 대한 제국 칙령 제41호에서 관할 영토로 명시한 곳이다.

정답: ⑤

* 독도에 대하여

독도는 삼국사기 기록에 따르면 지증왕 13년(512)에 이사부를 통하여 우산국을 정벌했음과 세종실록지리지(1454) 등을 통해서 우리 영토임이 분명하였으나, 조선 초기에 유민을 막기 위해 울릉도민들을 본토에 옮겨 살게 하여 한때 정부의 관리가 소홀하였다. 그러나 우리 어민들은 고기잡이를 하는 거점으로 줄곧 활용해 왔다.

특히, 조선 숙종 때에는 동래에 살던 안용복은 1696년 독도에서 일본인을 내쫓고 일본 막부에 항의하여 1697년 에도 막부는 울릉도에 출어를 금지시키겠다는 서신을 조정에게 보내고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확인받고 돌아왔다.

그 후에도 일본 어민의 침범이 계속되자, 19세기 말에 조선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울릉도 경영에 나서 주민의 이주를 장려하였고, 대한제국 때인 1900년 10월 25일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시켜 독도를 관할케 하였다(대한제국 정부 칙령 41호를 관보를 통해 공포).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인 1877년 당시 일본 정부의 최고 권력기관이었던 태정관이 <태정관 지령문>을 통해 울릉도와 이 섬을 조선 영토로 인정하였으나, 러·일 전쟁 중 자국 영토(시마네현)로 불법적으로 강제 편입하였다(1905.1).

이에 1906년 3월 울릉도 군수 심흥택이 독도가 일본 영토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독도가 울도군 관할이라는 보고를 올리자, 의정부 참정대신 박제순은 동년 5월 지령 제3호를 통해 독도의 일본 영토 편입을 부인하고 대한제국 영토임을 명백히 하였다.

다행히 1952년부터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지배(독도 의용수비대장 홍순철의 활약)하고 있으나, 일본은 자국 영토임을 부르짖으며 끈질기게 분쟁지역으로 몰아가고 있다.

① 몽고의 1차 침입이 끝나자 최씨 정권은 1232년 수도를 강화로 옮기고 항전하였다(~1270).

② 신유사옥(1801) 때 흑산도로 유배를 간 정약용의 형 정약전(1758~1816)은 그 지역의 어류를 조사한 '자산어보'를 저술하였다.

③ 네덜란드 상인 하멜 일행이 표류해 도착한 곳은 제주도이다(1653).

④ 병인양요(1866.9) 때에 양헌수가 거느린 군대는 강화도 정족산성에서 프랑스군을 격퇴하였다.

10. 밑줄 그은 '선종'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3점]

진성왕 즉위 5년에 선종(善宗)은 즉주의 적과 기현에게 의탁하였다. 기현이 업신여기고 잘난 체하며 예우하지 않았다. 선종은 답답하고 스스로 불안해져서 몰래 기현 휘하의 원희, 신원과 결연하여 친구가 되었다. 그는 임자년에 북원의 도적 양길에게 의탁하였다.

- 『삼국사기』 -

- ① 김흠돌 등 진골 세력을 숙청하였다.
- ② 고창 전투에서 고려군에게 패하였다.
- ③ 금성을 습격하여 경애왕을 죽게 하였다.
- ④ 금산사에 유배된 후 왕건에게 귀부하였다.
- ⑤ 국호를 마진으로 바꾸고 철원으로 천도하였다.

정답: ⑤

* 궁예에 대하여

애꾸눈으로 유명한 궁예(?~918)는 신라 왕족의 후예로서, 진표의 미륵신앙을 통해 농민층의 기반을 갖고 있던 궁예는 기현에 투신하였으나, 곧 양길의 휘하에서 새로운 활로를 찾게 되었다.

처음에는 북원(원주) 지방의 도적 집단을 토대로 강원도, 경기도 일대의 중부 지방을 점령하였다. 이어서 예성강 유역의 황해도 지역까지 세력을 넓혔다. 그는 세력이 커지자, 송악(개성)에 도읍을 정하고 독립하여 후고구려를 세웠다(901).

그 후 궁예는 영토를 확장하고 국가 기반을 다져, 국호를 마진(연호: 무태)로 바꾸고 도읍을 철원으로 옮기었다(904). 다시 태봉(연호: 수덕만세 -> 정개)으로 바꾸며(911) 황제국으로서의 면모와 새로운 정치를 추구하였다. 궁예는 광평성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관제를 마련하고 골품 제도를 대신할 새로운 신분 제도를 모색하였다.

그러나 궁예는 계속되는 전쟁을 치르려고 지나치게 조세를 거두어들였고, 죄 없는 관료와 장군을 살해하였을 뿐 아니라, 미륵 신앙을 이용하여 전제 정치를 도모하였다. 이에 따라 백성과 신하들의 신망을 잃어 신하들에 의하여 축출되었다(918).

① 신문왕(681~692)은 장인인 김흠돌의 반란(681)을 진압하며 귀족들을 숙청하며 왕권을 전제화시켰다.

②, ③, ④ 후백제를 건국한 견훤은 927년 신라 경주를 급습하여 경애왕을 죽게 하고 태조 왕건이 직접 신라를 돕기 위해 출전하던 고려군을 공산(대구) 전투에서 패배시켰으나(신승겸 김락 등 전사), 오히려 후백제를 막아낸 고려가 신라인의 신망을 얻었다. 그 결과 신라 경순왕의 항복을 받아 전쟁 없이 신라를 통합할 수 있었다(935).

고려는 930년 고창(안동) 전투에서 후백제를 크게 격파하여 승기를 잡고, 후백제에 내분(견훤의 아들 신검이 배다른 형제 금강을 죽이고 견훤을 금산사에 감금)이 일어나 탈출한 견훤이 귀부하자, 후백제를 정벌(일리천 전투)하여 후삼국을 통일하였다(936).

11. 다음 상황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왕이 원의 제도를 따라 변발과 호복을 하고 전상(殿上)에 앉아 있었다. 이연종이 말하기를, “변발과 호복은 선왕의 제도가 아닙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본받지 마소서.”라고 하였다. 왕이 기뻐하며 즉시 변발을 풀고, 이연종에게 옷과 이불을 하사하였다.

- ① 대표적 친원 세력인 기철이 숙청되었다.
- ② 김윤후가 처인성에서 몽골군을 물리쳤다.
- ③ 정중부 등이 정변을 일으켜 권력을 장악하였다.
- ④ 최충이 9재 학당을 세워 유학 교육을 실시하였다.
- ⑤ 만적을 비롯한 노비들이 신분 해방을 도모하였다.

정답: ①

* 공민왕의 반원자주 개혁

공민왕(1351~1374)은 충숙왕의 둘째 아들로서 원나라 노국대장공주를 아내로 맞이하고 원에서 살다가 원의 후원으로 왕위에 올랐으나, 고려인의 정체성을 결코 잃지 않고 반원자주 정책을 도모하였다.

그의 반원자주 정책은 이연종의 건의를 받아 들여 변발, 호복의 몽골 풍속을 금지하는 것으로 시작하였다(1352). 이어 기철로 대표되던 친원 세력을 숙청하고, 고려의 내정을 간섭하던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하고, 원의 간섭으로 바뀌었던 관제를 복구하였으며, 또, 유인우와 이자춘·이성계 부자를 시키어 쌍성총관부를 공격하여 철령 이북의 땅을 수복하였으며(1356), 더 나아가 지용수와 이성계를 시켜 요동으로 이전한 동녕부를 공략하였다(1370).

② 몽골의 2차 침입(1232) 때에 처인성(용인) 전투에서 승리 출신 김윤후와 처인 부곡민이 몽골군 사령관 살리타를 사살(射殺)하며 크게 물리쳤다.

③ 문신들에게 모욕적 차별을 받던 정중부, 이익방 등 무신들은 보현원에서 정변을 일으켜 다수의 문신을 죽이고 의종을 폐하고 명종을 내세웠다(1170)

④ 고려 중기 문종 때의 지공거 출신 대유학자인 최충(984~1068)은 9재 학당을 설립하여 후진을 양성하였다(1055).

⑤ 최충헌 무신 집권기에 개경에서 최충헌의 사노비인 만적이 중심이 되어 “장군과 재상이 어찌 종자가 따로 있으랴” 부르짖으며, 신분해방운동을 시도하였으나 사전에 발각되어 실패하였다(1198).

12. 밑줄 그은 '이 자기'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1점]



정답: ④

* 고려 상감 청자

고려 자기는 신라와 발해의 전통과 기술을 토대로 송의 자기 기술을 받아들여 귀족 사회의 전성기인 11세기에 독자적인 비색 청자를 개발하였고, 12세기 중엽에 고려의 독창적 기법인 상감법이 개발되어 자기에 활용되었다.

상감청자는 그릇 표면을 파낸 자리에 백토, 흑토를 메워 무늬를 내는 방법으로 무늬를 훨씬 다양하고 화려하게 넣을 수 있었기 때문에 청자의 새로운 경지를 열었고, 왕실과 관청 및 귀족들이 주로 사용하였다. 국보 68호 청자상감 운학문 매병이 가장 유명하다.

상감청자는 강화도에 도읍한 13세기 중엽까지 주류를 이루었으나, 원 간섭기 이후에는 퇴조해 갔다.

① 백자 달 항아리(보물 1437호, 17세기): 조선의 순백자를 대표하는 걸작으로 투박하면서도 유려한 곡선과 은은한 흰 빛이 어울린다.

② 청자 참외 모양 병(국보 94호): 맑고 투명한 비취색 자기인 고려 비색 청자의 대표. 참외 모양의 몸체에 꽃을 주둥이로 삼아 표현한 매우 귀족적인 작품으로 긴 목에 치마주름 모양의 높은 굽이 받치고 있는 단정하고 세련된 화병이다.

③ 철화 백자 매죽문 항아리(국보 166호): 16세기 후반

④ 청자 상감 운학문 매병(국보 68호)

⑤ 청화 백자 매죽문호(국보 170호): 청화백자는 조선 후기에 유행하였지만, 이 작품은 조선 전기의 작품이다.

13. (가)~(라)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3점]

- (가) 최우는 정방(政房)을 자기 집에 설치하였다. 정방에서 백관의 인물을 심사하여 인사 발령 명단을 바치면 왕은 단지 그것을 승인할 뿐이었다.
- (나) 후주 출신 쌍기는 왕에게 과거 제도의 도입을 건의하였고, 마침내 지공거(知貢舉)가 되어 시험을 통해 진사를 선발하였다.
- (다) 신돈이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할 것을 청하고 스스로 판사(判事)가 되었다. 빼앗았던 토지와 노비를 그 주인에게 돌려주는 권세가와 부호가 많아, 온 나라 사람들이 기뻐하였다.
- (라) 정치도감의 관원이 남의 땅을 빼앗고 불법을 자행한 기삼만을 잡아다가 죽게 한 일이 있었다. 정동행성 이문소에서 그 관원을 가두자, 왕후(王后)와 김영돈이 침의부에 글을 올려 관원들을 변호하였다.

- ① (가) - (나) - (다) - (라)
 ② (가) - (나) - (라) - (다)
 ③ (나) - (가) - (다) - (라)
 ④ (나) - (가) - (라) - (다)
 ⑤ (다) - (가) - (나) - (라)

정답: ④

* 고려사의 연대기

(나) 광종(949~975) 후주 출신 귀화인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 과거 제도를 시행하여 (958), 유학을 익힌 신진 인사를 등용하고 신구 세력의 교체를 도모하였다.

(가) 승려 출신의 신돈(?~1371)은 공민왕의 비호 아래 전민변정도감(1366)을 맡아 권문세족이 부당하게 빼앗은 토지와 노비를 환원케 하는 개혁정책을 펼치기도 하였다.

(라) 고려 충목왕(1344~1348)은 정치도감(1347)을 두어 부원세력을 척결하고 권문세족들이 빼앗은 토지와 노비의 문제를 일시적으로 해결하였다. 대표적으로 친원 권문세족 기삼만을 처리하다가 죽게 하였을 때 대원(對元) 관계 범죄를 다스리는 기구인 정동행성 이문소가 개입하여 2년 만에 폐지되었다.

(다) 최씨 정권의 2대 집권자인 최우(?~1249)는 아버지 최충헌의 뒤를 이어 교정도감을 통하여 정치권력을 행사하였다. 더 나아가 자기 집에 정방(1225)을 설치하여 모든 관직에 대한 인사권을 장악하였다.

14.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기전체 형식으로 서술하였습니다.
- ② 조선 건국의 정통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③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습니다.
- ④ 단군 조선에서 고려까지의 역사를 정리하였습니다.
- ⑤ 불교사를 중심으로 고대의 민간 설화 등을 수록하였습니다.

정답: ①

* 김부식이 편찬한 삼국사기

고려 인종 때에 김부식 등이 왕명을 받아 삼국사기를 편찬하였다(1145).

삼국사기는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역사서로서, 고려 초에 쓰여진 구삼국사(단군조선-고구려-고려로 이어져 온 역사 계승 의식으로 추정)를 기본으로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기초하여 신이(神異:신기하고 기이한) 사관을 배격하였으며, 기전체로 서술하였다(세가가 없이 본기·열전·지·표로 구성).

고려는 건국 초부터 고구려 계승의식을 뚜렷하게 표방하였으나, 중기에 이르러 신라 계승 의식이 강화되었는데, 삼국사기에는 신라 계승의식이 더 많이 반영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② 조선 태조 때에 정도전은 고려국사(1395)를 편찬하여 고려의 역사를 정리하고, 고려 멸망의 당위성과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밝히려 하였다.

③ 정조 때에 유득공(1748~?)은 발해고(1784)를 저술하여 남의 신라와 북의 발해를 남북국 시대라 부를 것을 처음으로 제안하고, 발해사를 우리 역사로 인식하였다.

④ 조선 성종 때에 서거정 등이 편찬한 동국통감(1485)은 우리나라의 전체 역사를 편찬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단군 고조선에서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정리하여 간행한 편년체 통사이다.

⑤ 원의 간섭기인 충렬왕 때에 일연이 쓴 '삼국유사'(1281)는 불교사를 중심으로 고대의 민간 설화나 전래 기록을 수록하는 등 우리의 고유 문화와 전통을 중시하였다. 특히 단군을 우리 민족의 시조로 여겨 단군의 건국 이야기를 수록하였다.

15.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2점]

거란군이 귀주를 지날 때, 강감찬 등이 동쪽 교외에서 맞아 싸웠다. 고려군이 용기백배하여 맹렬하게 공격하니, 거란군이 북으로 도망치기 시작하였다. 거란군의 시신이 들판에 널렸고, 사로잡은 포로와 획득한 말, 낙타, 갑옷, 무기는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살아서 돌아간 자가 겨우 수천 명이었으니, 거란의 패배가 이토록 심한 적이 없었다.

- 『고려사』 -

918	993	1104	1170	1232	1270
(가)	(나)	(다)	(라)	(마)	
고려 건국	서희의 외교 담판	별무반 조직	무신 정변	강화 천도	개경 환도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정답: ②

* 귀주 대첩(1019)

10세기 초에 통일 국가를 세운 거란(요)은 송과 대결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여러 차례 고려를 침략하였다.

993년 거란은 80만 대군을 이끌고 침략하여, 고려가 차지하고 있는 옛 고구려 땅을 내놓고 송과 교류를 끊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소손녕과의 외교 담판에 나선 서희는 거란과 교류할 것을 약속하는 대신, 고려가 고구려의 후계자임을 인정받고 압록강 동쪽의 강동 6주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994).

거란은 목종을 폐하고 현종을 즉위시킨 강조의 정변(1009)을 구실삼아 2차 침입(1010)을 하였다. 개경이 함락되고 현종은 나주까지 피난가기도 하였다. 국왕의 입조를 조건으로 거란군은 철병하였다. 이 때 양규는 흥화진(의주)에서 거란 20만 대군에 맞서 싸워 돌아가게 만들었고, 철병하는 거란군을 급습하여 귀주에서 7전 전승을 거두며 3만명이 넘는 백성을 구하다 장렬히 전사하였다.

현종의 친조와 강동 6주의 반환 요구를 요구하며 단행된 3차 침입 때에는 소매압이 이끄는 10만 대군을 강감찬이 귀주에서 맞서 싸워 살아 돌아간 거란의 군사가 겨우 수천에 이를 정도로 대승을 거두었다(귀주 대첩, 1019).

이후, 더 이상 거란의 침략은 없고, 송, 요, 거란 사이에 균형적 평화가 100여 년간 있었다.

* 고려 숙종~예종 때에 윤관의 건의로 별무반을 편성하여(1104) 여진족을 북방으로 밀어내고 동북 9성을 쌓았다(1107).

16. (가) 지역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 ① 인조가 피신하여 청군에 항전하였다.
- ② 오페르트가 남연군 묘 도굴을 시도하였다.
- ③ 정약용이 유배 중에 경세유표를 저술하였다.
- ④ 김광제 등의 발의로 국채 보상 운동이 일어났다.
- ⑤ 노동자 강주룡이 을밀대 지붕에서 고공 농성을 벌였다.

정답: ④

* 대구의 역사

- 신라 통일 직후인 신문왕 때에 달구벌(대구)로 천도하고자 하였으나 귀족들의 반대로 무산되었다(689).

- 고려 태조 왕건은 후백제에 수도를 침략당한 신라를 원조하다가 공산(대구)에서 후백제에 크게 패배하였다(927). 김락, 신승겸 등 8명의 장수 전사하여 팔공산이 유래하였다.

- 팔공산에 자리한 부인사에 고려 현종 때 판각한 고려 최초의 대장경이자 거란의 침입을 불력으로 물리치고자 만들어졌던 초조대장경이 보관되었으나 몽골의 2차 침입(1232)으로 소실되었다

- 조선 후기 사상(私商)의 성장은 전국적으로 발달한 장시를 토대로 하였다. 또한 특수 시장도 발전하였는데 대구는 봄, 가을에 개장하는 약재 시장인 약령시(藥令市) 유명하였다.

- 일본에게 진 빚(국채)을 국민의 성금으로 보상하자는 운동인 국채보상운동(1907)은 대구 광문사의 서상돈, 김광제 등의 주도하여 시작되었다. 그 후 각종 계몽 단체와 대한매일신보, 황성신문, 제국신문, 만세보 등의 언론 기관이 참여하는 가운데 서울에서 결성된 국채보상기성회(김성희, 유문상 등)를 중심으로 확산되었다.

- 1960년 3.15 정·부통령 선거 직전인 2월 28일 당국이 야당의 선거유세장에 가지 못하도록 일요일에 등교조치한 데 반발하여 대구 시내 고등학생들이 시위를 벌여 3.15 마산 의거와 4.19 의거의 도화선이 되었다.

① 병자호란(1636) 때에 인조는 남한산성(경기 광주)으로 피신하였으나 45일 만에 나와 삼전도에서 청에 굴욕적인 항복을 하였다.

② 독일상인 오페르트는 흥선 대원군의 부친 남연군(충남 예산군 덕산 소재)의 무덤을 도굴하려다가 실패하고 돌아났다(1868).

③ 정약용(1762~1836)은 신유사옥(1801, 천주교 박해)과 관련되어 18년 간 강진에서 유배 생활을 하며 ‘목민심서’, ‘경세유표’ 등 500여 권의 많은 책을 저술하였다.

⑤ 여성 노동자인 강주룡(1901~1932)은 1931년 평양 고무공장 파업 때 을밀대 지붕 위에서 투쟁하였다.

17.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가) - 영국이 러시아의 남해를 구실로 불법 점령하였다.
- ② (나) - 통일 신라 때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하였다.
- ③ (다) - 6·25 전쟁 때 포로 수용소가 설치되었다.
- ④ (라) - 러시아가 저탄소 설치를 명분으로 조차를 요구하였다.
- ⑤ (마) - 삼별초가 용장성을 쌓고 몽골에 대항하였다.

정답: ②

* 남해안 각 섬들의 역사

(가) 진도: 고려 삼별초의 대몽 항쟁지(강화도, 진도, 제주도) 중 하나인 용장성이 있고, 임진왜란 때에 이순신의 명량(울돌목, 진도와 해남 사이) 대첩으로 유명하다.

(나) 완도: 통일신라기 장보고가 해상권을 장악하고 중국·일본과 무역하던 곳인 청해진으로 유명하다.

(다) 거문도: 1885~1887년 영국이 러시아의 남해를 막는다는 명목으로 3년간 불법 점령한 곳이다.

(라) 거제도: 6.25 전쟁 중 공산군 포로수용소가 있던 곳이고 1952년 큰 폭동이 있었다.

(마) 영도: 빼어난 절경의 섬이라 하여 절영도라 불리우는 이 섬은, 1897년 러시아가 자국 선박의 연료 공급을 위해 이 곳에 저탄소 조차를 시도하였나,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의 강력한 이권수호운동으로 인해 좌절되었다(1898.3).

18. 다음 장면에 등장하는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경제 모습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해동통보가 주조되어 유통되었다.
- ② 전한국에서 백동화가 발행되었다.
- ③ 중국 화폐인 명도전, 반량전이 널리 사용되었다.
- ④ 공인이 상평통보를 사용하여 물품을 조달하였다.
- ⑤ 궁궐 중건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당백전을 발행하였다.

정답: ①

* 고려 숙종 대의 화폐 발행

고려 숙종(1095~1105) 때에는 국가 재정의 확보를 위해 의천과 윤관이 화폐 유통책을 건의하여 주전도감(1097)이 설치되었고, 삼한통보·해동통보(1102), 해동중보(1103) 등의 동전과 호리병 모양의 활구(은병, 1101)라는 은전을 만들었다.

군사적으로는 여진 정벌을 위해 윤관의 건의로 별무반을 편성하여(1104) 여진족을 북방으로 밀어내고, 예종(1105~1122) 대에 동북 9성을 쌓았다(1107).

② 백동화는 개항기인 1892년 전한국에서 발행한 액면가 2전5푼(二錢五分)의 근대식 동전으로, 1905년 일제에 의한 화폐정리사업 때에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③ 철기 시대 이후 중국과 본격적으로 교류하며 명도전(연), 반량전(진), 오수전(한) 등의 중국 화폐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④ 조선 후기 숙종 때에 허적 등의 건의로 주조된 상평통보(1678)가 전국적으로 유통되어 누구나 상평통보만 가지면 물건을 살 수 있었다.

⑤ 조선 말기 고종(1863~1907) 때에 흥선대원군은 경복궁 중건을 위해 상평통보 100배의 명목가치에 해당하는 당백전을 발행하여 물가상승을 야기하였다(1866).

19. 밑줄 그은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백관을 소집하여 금을 섬기는 문제에 대한 가부를 의논하게 하니 모두 불가하다고 하였다. 유독 이자겸, 척준경만이 "금이 정치를 잘하고 병력도 강성하여 날로 강대해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와 서로 국경이 맞닿아 있어 섬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작은 나라로서 큰 나라를 섬기는 것은 선왕의 도리이니, 사신을 보내 먼저 예를 갖추어 찾아가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하니 왕이 이 말을 따랐다.

- 「고려사」 -

- ① 최충헌이 봉사 10조를 올렸다.
- ② 명학소의 망이·망소이가 봉기하였다.
- ③ 최무선의 건의로 화통도감이 설치되었다.
- ④ 강조가 정변을 일으켜 김치양을 제거하였다.
- ⑤ 묘청이 수도를 서경으로 옮길 것을 주장하였다.

정답: ⑤

* 고려 인종 대(1122~1146)의 역사적 사실

고려 숙종~예종 때에 윤관의 건의로 별무반을 편성하여 여진족을 북방으로 밀어내고 동북 9성을 쌓았으나(1107), 수성의 어려움과 여진족의 간청으로 곧 반환하였고(1109), 이후 여진족은 더욱 세력을 키워 만주 일대를 장악하고 금을 건국하였으며(1115), 거란을 멸망시킨(1125) 뒤 고려 인종 때에 군신 관계를 요구해 왔다. 조정에서는 논란이 치열하게 일어났으나, 당시 집권자였던 이자겸이 금과 무력 충돌을 피하기 위해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였다(1126).

이후 이자겸이 국왕의 자리까지 넘보자 위협을 느낀 인종은 이자겸을 제거하려 하였으나, 도리어 그의 반격을 받아 궁궐이 불타는 등 위기에 처하였다. 그러나 이자겸의 부하 척준경을 회유하여 이자겸을 제거하고, 척준경도 탄핵을 받아 축출됨으로써 이자겸 세력은 몰락하였다.

이자겸의 난(1126) 이후, 인종은 실추된 왕권을 회복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며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개혁을 추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김부식을 중심으로 한 보수적 관리들과 묘청, 정지상을 중심으로 한 지방 출신의 개혁적관리들 사이에 대립이 벌어졌다. 묘청 세력은 풍수지리설을 내세워 서경(평양)으로 도읍을 옮겨, 보수적인 개경의 문벌귀족 세력을 누르고 왕권을 강화하면서 자주적인 혁신 정치를 시행하려 하였다. 이들은 서경에 대화궁이라는 궁궐을 짓고, 황제를 칭할 것과 금을 정벌하자고 주장하였다. 묘청 세력은 서경 천도를 통한 정권 장악이 어렵게 되자 서경에서 난을 일으켰으나(1135), 김부식이 이끈 관군의 공격으로 약 1년 만에 진압되고 말았다.

①, ② 고려 무신정권기 명종 대(1170~1197)에 무거운 조세 부담에 시달리던 공주 명학소의 주민들이 망이, 망소이 형제를 중심으로 봉기하다 진압되었으며(1176), 최충헌이 전임 집권자 이익민을 타도하고 정권을 잡으며 혼란을 극복하기 위하여 봉사 10조와 같은 사회 개혁책을 제시하기도 하였다(1196).

③ 고려 말 우왕 때(1374~1388)에 최무선은 화약 제조법을 터득하고 화통도감 설치를 건의하고 화약과 화포를 제작하였고(1377), 화포를 이용하여 진포 싸움에서 왜구를 크게 무찔렀다(1380).

④ 고려 목종(997~1009) 때에 천추태후와 정부(情夫)인 김치양이 전횡을 일삼고 그들 사이의 아들을 왕으로 내세우려 하자, 어지러운 고려 왕실을 바로잡고자 서북면 도순검사 강조는 군사를 이끌고 개경으로 들어와 정변을 일으켜 천추태후와 김치양을 제거하였다(1009). 그러나 목종을 폐하고 현종을 즉위시켜 거란의 2차 침략 구실을 만들었다(1010).

20. (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3점]

(가) 대군이 압록강을 건너서 위화도에 머물렀다. …… 태조가 여러 장수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글을 올려 …… 군사를 돌이킬 것을 청했으나, 왕도 살피지 아니하고, 최영도 놓고 정신이 혼몽하여 듣지 않았다.” …… 태조가 회군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사람들이 다투어 밤낮으로 달려서 모여든 사람이 천여 명이나 되었다.

— 『태조실록』 —

(나) [대소 신료들이] 왕위에 오를 것을 간절히 권하여, 태조가 마치 못해 수창궁으로 행차하였다. 백관들이 서쪽 궐문에서 줄을 지어 맞이하니, 태조는 말에서 내려 걸어서 대전에 들어가 왕위에 올랐는데, 어좌(御座)를 피하고 기둥 앞에 서서 여러 신하들의 하례를 받았다.

— 『태조실록』 —

- ① 녹읍을 폐지하고 관료전을 지급하였다.
- ② 조준 등의 건의로 과전법을 제정하였다.
- ③ 양지아문을 설치하여 양전 사업을 실시하였다.
- ④ 공로와 인품에 따라 역분전을 차등 지급하였다.
- ⑤ 직전법을 실시하여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하였다.

정답: ②

* 위화도 회군(1388)과 조선 건국(1392) 사이의 역사적 사실

고려 말 공민왕, 우왕 때에 남과 북의 외적에 대한 토벌 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최영과 이성계는 큰 전과를 올려 국민의 신망을 얻었다. 우왕 때에 이르러 권문세족이 토지 겸병을 확대하자, 최영(1316~1388)이 이성계(1335~1388)를 위시한 사대부 세력의 뒷받침을 받아 이인임 일파를 축출하였다.

그러나 개혁의 방향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다. 마침 명이 철령 이북의 땅을 차지하려 하자, 최영은 이성계를 시켜 요동 정벌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이성계는 4불가론을 주장하며 위화도에서 회군하여(1388) 최영을 제거한 뒤, 군사적 실권을 장악하여 본격적인 개혁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성계를 중심으로 모인 급진 개혁파(혁명파) 사대부 세력은 우왕과 창왕을 잇따라 폐하고 공양왕을 세운 후(1389), 조준 등의 건의로 전제 개혁을 단행하여 과전법을 마련하였다(1391). 이를 바탕으로 이성계와 급진 개혁파 사대부 세력은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건국하였다(13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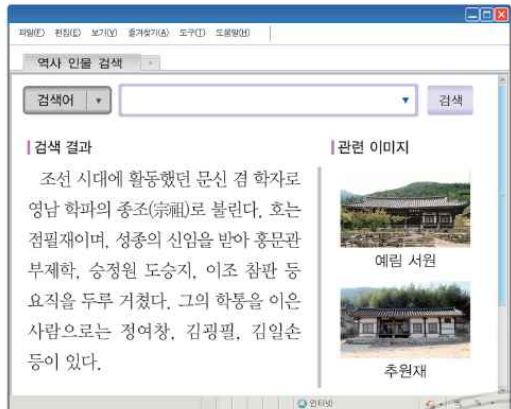
① 통일신라기 신문왕(681~692) 때에는 문무 관리에게 관료전을 지급(687)하고, 귀족의 경제적 기반인 녹읍을 폐지하였다(689).

③ 고종은 대한제국의 조세 수입을 늘리고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을 확립하기 위해 양지아문(1898)을 설치하여 양전 사업을 하고, 지계아문(1901)을 통하여 근대적 토지 소유 문건인 지계를 발급하였다.

④ 고려 태조 때에 개국 공신과 군인들의 논 공행상 일환으로 인품, 행실, 공로를 기준으로 역분전을 차등 지급하였다(940).

⑤ 조선 초기 전·현직 관료들에게 직역의 대가로 수조권 토지를 지급하는 과전법이 수신전, 휴양전 등으로 토지가 세습되어 새로 관직에 나간 관리에게 줄 토지가 부족하게 되자, 세조 때에 직전법(1466)으로 바꾸어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하고 수신전과 휴양전 등을 폐지하였다.

21.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갑술환국으로 정계에서 축출되었다.
- ② 반정 공신의 위훈 삭제를 주장하였다.
- ③ 무오사화의 발단이 된 조의제문을 작성하였다.
- ④ 색경을 저술하여 농업 기술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 ⑤ 양명학을 연구하여 강화 학파 형성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정답: ③

* 영남 사림의 종조 김종직(1431~1492)

조선 전기의 성리학자이자 영남 학파의 종조(본관 선산)이며 정몽주와 길재의 학통을 계승(아버지 김숙자가 길재에게 사사)하여 김굉필-조광조로 이어지는 조선시대 도학 정통의 중추적 역할을 하였다.

그는 세조 대에 과거에 합격하여 중앙 정계로 나아간(1459) 후, 성종이 훈구 세력을 견제하기 위하여 사림 세력을 중용하자 향촌 사회에서 사회.경제적 지위를 굳히던 김종직과 그 문하 사림은 중앙 정계에 대거 진출하여 권력에 참여함으로써 훈구 세력을 견제하였다. 과거를 통하여 중앙에 진출한 사림 세력은 주로 전랑과 3사의 연관직을 차지하고 훈구 세력의 비리를 비판함으로써 그들의 일방적인 독주를 견제하였기에, 성종 대는 훈구 세력과 사림 세력이 균형을 이루고 왕권을 안정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생전에 지은 조의제문(항우에 의해 죽임을 당한 초나라 의제를 추모하는 글. 마치 세조에 의해 죽은 단조를 빗대는 듯이 보임)이 그가 죽은 후인 1498년(연산군4) 무오사화가 일어나는 원인이 되었다. 그는 부관참시를 당하였으며, 많은 제자가 죽음을 당하였다.

문하생으로는 정여창(후일 5현으로 문묘에 배향), 김굉필(후일 5현으로 문묘에 배향), 김일손(후일 사관으로 무오사화와 관련됨), 유호인, 남효온 등이 유명하고, 친가인 선산의 외가인 밀양의 금오 서원, 외가인 밀양의 예림 서원 등에 봉사되었다.

① 숙종 대에 인현왕후(서인 옹호) 복위와 중전 장씨의 희빈 강등 관련하여 민암, 권대운 등의 남인이 쫓기고 서인(노론, 소론) 재집권하였다(1694).

② 중종 대에 조광조(1482~1519) 등의 사람들은 중종 반정의 공신 중 과장된 공신호를 받은 이들에 대한 위훈삭제를 주장하였다(1519).

④ 17세기에 박세당(1629~1703)은 <색경>을 지어 곡물 재배법 이외에 채소, 과수, 화초 재배법, 목축, 양잠기술을 소개하여 농업 기술의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⑤ 18세기 초에 정제두(1649~1736)는 박세채, 윤증 등의 소론 학자가 명맥을 이어가던 양명학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학파로 발전시켰다(강화학파).

22. (가) 신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 ① 소속 관청에 신공(身貢)을 바쳤다.
- ② 매매, 상속, 증여의 대상이 되었다.
- ③ 원칙적으로 과거에 응시할 수 없었다.
- ④ 장례원(掌禮院)을 통해 국가의 관리를 받았다.
- ⑤ 조선 후기 시사(詩社)를 조직해 위향 문학 활동을 하였다.

정답: ⑤

* 중인에 대하여

중인은, 넓은 의미로는 양반과 상민의 중간 신분 계층을 뜻한다. 좁은 의미로는 기술관만을 의미하나(의관-의학, 역관-통역, 율관-법률, 산관-수학), 넓은 의미로는 향리나 서얼도 포함한다..

기술직인 좁은 의미의 중인들은 주관적으로는 사족(士族)의 후예임을 자처하는 동시에 양반과 다른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믿었고, 조선 후기에는 독특한 시문인 위향문학(委巷文學)을 바탕으로 시사(詩社)를 조직하여 문예활동을 하기도 하였다.

중인은 양반에게서 멸시와 하대를 받았으나, 대개 전문 기술이나 행정 실무를 담당하였으므로 나름대로 행세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역관은 사신을 수행하면서 무역에 관여하여 이득을 보았으며, 향리는 토착 세력으로서 수령을 보좌하면서 위세를 부리기도 하였다.

과거와 관련하여서는 문과의 경우 탐관오리의 아들, 재가한 여자의 아들과 손자, 서얼에게는 응시를 금지하였다(무과, 잡과는 가능). 좁은 의미의 중인(기술관)에게는 제도적으로 문과 응시가 금지된 것은 아니나 보통 잡과(기술직)에 주로 응시하였다.

①, ②, ③, ④ 매매·상속·증여의 대상인 노비는 크게 국가에 속한 공노비와 개인에게 속한 사노비로 구별되고, 장례원을 통해 국가의 관리를 받았다. 사노비는 주인집에서 함께 사는 솔거 노비와 주인과 떨어져 독립된 가옥에서 사는 외거 노비가 있었다. 외거 노비는 주인에게 노동력을 제공하는 대신에 신공을 바쳤으며, 공노비도 국가에 신공을 바치거나 관청에 노동력을 제공하였다.

23.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1점]

정도전, 남은, 심효생 등이 여러 왕자를 해치려 꾀하다가 성공하지 못하고 참형을 당하였다. 이에 정안군이 도당(都堂)으로 하여금 백관을 거느리고 소를 올리게 하였다. “후계자를 세울 때에 장자로 하는 것은 만세의 상도(常道)인데, 전하께서 장자를 버리고 어린 아들을 세웠으며, 정도전 등이 세자를 감싸고서 여러 왕자를 해치고자 하니 화를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천지와 종사의 신령에 힘입게 되어 난신(亂臣)이 참형을 당하였으니, 원컨대 전하께서는 적장자인 영안군을 세워 세자로 삼으십시오.”라고 하였다.

1374	1392	1418	1453	1485	1519
(가)	(나)	(다)	(라)	(마)	
우왕 즉위	조선 건국	세종 즉위	계유 정난	경국대전 반포	기묘 사화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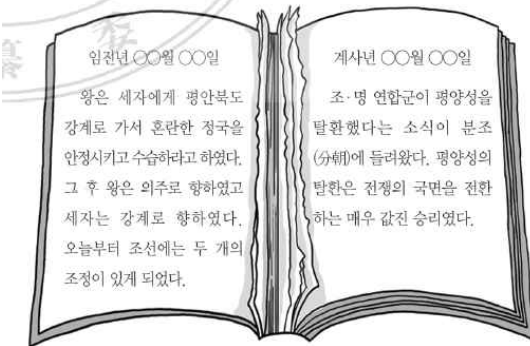
정답: ②

* 제1차 왕자의 난

조선 건국(1392) 후 태조는 1394년 하륜, 정도전 등의 건의에 따라 한양 천도를 단행하였다(1394). 이 때에 최대의 개국공신인 정도전(1342~1398)이 각종 전각의 이름을 짓는 등 큰 활약을 하였으며 그는 재상 중심의 통치를 표방하며 실권을 장악하였다.

그러나 정도전의 재상 중심의 정치와 요동 정벌을 빌미로 왕자들의 사병을 폐지하려는 움직임에 반발하던 5째 아들 정안군 이방원(태종)이 정도전과 그가 후원하던 세자 방석을 제거하는 1차 왕자의 난(1398)을 일으키며 실권을 장악하자, 충격에 빠진 태조는 2째 아들 영안군 방과(정종)에게 선위하였다.

24. 다음 일기의 훼손된 부분에 해당하는 시기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 ① 이순신이 한산도 대첩에서 승리하였다.
- ② 정발이 부산진성 전투에서 전사하였다.
- ③ 휴전 회담의 결렬로 정유재란이 시작되었다.
- ④ 명의 요청으로 강홍립의 부대가 파견되었다.
- ⑤ 정봉수와 이립이 의병을 이끌고 활약하였다.

정답: ①

* 임진왜란의 전개과정

1592년 4월 14일, 정명가도를 내걸고 왜군이 부산진과 동래성으로 침략해 오자, 첨사 정발과 부사 송상현 등이 힘껏 싸웠으나 막지 못하고 성이 함락되고 말았다.

그 후, 왜군은 세 길로 나누어 북쪽으로 쳐들어왔다. 중앙에서는 선봉으로 순변사 이일을 보내었으나 상주에서 패퇴하자, 충주에서 신립이 탄금대에서 배수의 진을 치며 북상을 막으려 하였으나, 이 역시 실패하고 말았다(4.28). 왜군이 한양 근처에 육박하자 선조는 의주로 피란하였다(4.30~6.22). 왜군은 6월에 평양과 함경도까지 북상하여 한반도 전역을 손아귀에 넣으려고 하였다.

조선은 육전에서와 달리 해전에서는 곳곳에서 왜군에 큰 타격을 입혔다. 이순신이 이끄는 수군이 옥포에서 첫 승리를 거두고(5.4), 이어서 거북선과 판옥선을 앞세워 사천, 당포, 한산도 앞 바다(한산 대첩, 1592.7) 등 여러 곳에서 승리를 거두며 제해권을 장악하여, 왜군의 보급로를 차단하고, 전라도 곡창지대와 황해안을 지킬 수 있었다.

한편, 전국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났다. 경상도 의령에서 곽재우가 처음 일으킨 후 조헌, 고경명, 정문부, 유정(사명대사) 등이 여러 지방에서 왜군과 싸워 이겼고, 김시민은 진주에서 적군 2만 명을 상대로 큰 승리를 거두었으나 장렬히 전사하였다(1592.10).

수군이 승리를 거두고 의병의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될 무렵, 요청한 명의 원군까지 도착하여 조선은 왜군에 반격을 가하여 평양성에서 조·명 연합군은 크게 승리하며 탈환했으나(1593.1.6), 벽제관에서 일본군은 명군을 대파하여(1593.1.27) 위기에 빠졌다. 다행히 권율이 행주산성에서 큰 승리를 거두어(행주대첩, 1593.2) 위기에서 벗어나 4월 말에는 왜군이 서울에서 철수하고 (한성 복귀), 경상도 해안 지방으로 밀려난 왜군은 전열을 가다듬기 위해 휴전을 제의하였다.

그러나 3년간을 끌어 오던 화의 교섭이 실패하자, 왜군은 다시 공격해 왔다(정유재란, 1597.1). 임진년과 달리 화의 기간에 조선군도 군비를 잘 갖추고 명군과 협조하여 왜군을 쉽게 물리칠 수 있었다. 또, 물러났던 이순신이 다시 기용되어 명량에서 왜군을 대파하였다(1597.9, 12척으로 133척을 물리침). 마침 도요토미가 사망하고 전세도 불리해지자 왜군은 철수하기 시작하였다. 이 때 이순신은 퇴각하는 왜군을 노랑에서 격멸하였으나, 적의 유탄에 맞아 장렬하게 전사하며(1598.11.19) 전쟁은 끝이 났다.

④ 광해군 때에 명의 요청으로 후금을 토벌키 위해 심하(深河)에 강홍립과 군대를 파견하였으나 적당히 싸우다 항복하는 중립외교를 펼쳤다(1619).

⑤ 정묘호란(1627) 때에 정봉수와 이립 등은 의병을 일으켜 관군과 합세하여 적을 맞아 싸웠다. 특히, 정봉수는 철산의 용골산성에서 큰 전과를 거두었다.

25.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2점]



정답: ⑤

* 법주사 팔상전

조선 후기 17세기의 건축물로는 전북 김제 금산사 미륵전(국보 62호, 1635), 전남 구례 화엄사 각황전(1702, 국보 67호), 충북 보은 법주사 팔상전(국보 55호, 1605년,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유일한 5층 목조탑, 석가모니의 생애를 8장면으로 묘사한 불화 소재) 등을 대표로 꼽을 수 있다.

이것들은 모두 규모가 큰 다층 건물로, 내부는 하나로 통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불교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양반 지주층의 경제적 성장을 반영하고 있다.

① 마곡사 대웅보전 (보물 801호): 충남 공주 소재. 17세기 건물. 중층 다포계 팔작 지붕.

④ 무량사 극락전 (보물 356호): 충남 부여 소재. 인조 때 중건된 건물. 외관상 중층으로 보이나, 내부는 하나로 통하는 구조

26.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3점]

임금이 말하기를, “송시열은 산림(山林)의 영수로서 나라의 형세가 험난한 때에 감히 원자의 명호를 정한 것이 너무 이르다고 하였으니, 삭탈 관작하고 성문 밖으로 내쳐라. 반드시 송시열을 구하려는 자가 있겠지만, 그런 자는 비록 대신이라 하더라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 ① 공신 책봉 문제로 이괄의 난이 일어났다.
- ② 정여립 모반 사건으로 옥사가 발생하였다.
- ③ 허적과 윤휴 등 남인들이 대거 축출되었다.
- ④ 복인이 서인과 남인을 배제하고 권력을 장악하였다.
- ⑤ 인현 왕후가 폐위되고 희빈 장씨가 왕비로 책봉되었다.

정답: ⑤

* 기사환국(1689)

숙종(1674~1720)은 인사 관리를 통하여 세력 균형을 유지하려는 탕평론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상황에 따라 한 당파를 일거에 내몰고 상대 당파에게 정권을 모두 위임하는 편당적인 인사 관리로 일관하여 서인과 남인 사이에 환국이 일어나는 빌미를 제공하기도 하였다(일당 전제화).

경신환국(1680): 유약(기름먹인 장막) 사건을 빌미로(허견 역모) 서인이 남인(허적, 윤휴 등)을 몰아내고 집권. 남인에 대한 처벌을 놓고 서인의 노론(강경론), 소론(온건론) 분화

기사환국(1689): 원자(장희빈 소생)를 정하는 과정에서 이를 지지하는 남인들이 반대하는 서인들을 몰아내고 집권, 인현왕후가 폐위되고 장희빈이 왕비로 책봉되었으며, 서인 노론의 영수 송시열 등이 사사됨.

갑술환국(1694): 인현왕후(서인 옹호) 복위와 중전 장씨의 희빈 강등 관련, 남인이 쫓기고 서인(노론, 소론) 재집권.

① 인조 반정(1623) 과정에서 공이 큰 이괄 2등 공신으로 한 것은 이괄의 난(1624)을 불러일으키고 도성이 함락되고 인조는 공주로 피난가기 까지도 하였으나 도원수 장만이 관군과 의병을 모아 진압하였다.

② 선조 때에 기축옥사(1589~1591) 즉 정여립 모반 사건으로 동인들이 연루되고 서인이 집권하였다.

④ 임진왜란이 끝난 뒤 복인이 집권하여 광해군 때까지 정국을 주도하였다. 복인은 서인과 남인 등을 배제한 채 정권을 독점하려 하였고, 결국 서인이 주도한 인조반정에 의해 몰락하였다(1623).

27. (가) 서적이 편찬된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점]



- ① 개시 무역과 후시 무역이 이루어졌다.
- ② 담배, 면화와 같은 상품 작물이 재배되었다.
- ③ 시장을 관리하기 위한 동시전이 설치되었다.
- ④ 송상, 만상이 대청 무역으로 부를 축적하였다.
- ⑤ 모내기법의 확대와 벼와 보리의 이모작이 확산되었다.

정답: ③

* 조선 후기 경제상

- 조선 후기 상공업 중심 개혁론의 선구자인 유수원(1694~1755)은 우서를 저술하여 상공업의 진흥과 기술의 혁신을 강조하고, 사농공상의 직업 평등과 전문화를 주장하였다.

- 조선 후기인 17세기 중엽부터 청과의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국경 지대를 중심으로 공적으로 허용된 무역인 개시와 사적인 무역인 후시가 이루어졌다.

- 조선 후기에는 상품의 유통이 활발해지며, 농민은 쌀 이외에도 목화, 채소, 담배, 인삼, 약초 등의 상품작물을 재배하여 팔았다.

- 조선 후기에는 송상, 만상 등의 사상(私商)들이 서울을 비롯한 각지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였고, 대외무역에도 종사하여 부를 축적하였다. 의주의 만상은 대청 무역을 주도하면서 재화를 많이 축적하였다.

- 조선 후기의 논농사에서는 모내기법(이앙법)이 확대되어 벼와 보리의 이모작이 확산되었다.

③ 신라는 지증왕 때부터 시장 감독 기구로 동시전(509)을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28. 밑줄 그은 '이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2점]

이곳 만석거(萬石渠)는 이 왕이 수원 화성을 건립하면서 축조한 수리 시설 중 하나입니다. 수갑(水閘) 및 수도(水道)를 만든 기술의 혁신성, 백성들의 식량 생산에 이바지 한 점, 풍경의 아름다움 등 역사·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2017년 세계 관계 시설물 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 ① 집현전을 계승한 홍문관을 설치하였다.
- ② 군역의 부담을 줄이고자 군역법을 제정하였다.
- ③ 초계문신제를 실시하여 문신들을 재교육하였다.
- ④ 봉당의 폐해를 경계하기 위해 탕평비를 건립하였다.
- ⑤ 삼정의 문란을 해결하기 위해 삼정이정청을 설치하였다.

정답: ③

* 수원 화성을 건설한 정조의 업적

영조의 뒤를 이은 정조(1776~1800)도 탕평책을 실시하였다. 정조는 즉위하자 곧 규장각(1776)을 설치하여 자신의 권력과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치기구로 삼았고, 신진 인물이나 중·하급 관리 중에서 유능한 인사를 재교육하는 초계문신 제도를 실시하고, 법전으로는 대전통편(1785)을 편찬하였다.

정조는 정국 운영을 군주가 주도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왕권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에 정조는 친위 부대로 장용영을 설치하였다(1785).

특히 정조는 수원으로 사도 세자의 묘를 옮기고 화성을 세워(1794~1796) 정치적·군사적 기능을 부여함과 동시에, 상공인을 유치하여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는 상징적 도시로 육성하고자 하였다. 이 때 정약용은 거증기를 제작하여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공사비를 줄이는 데 크게 공헌하였으며, 인근에 입주한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만든 만석거 저수지를 만들고, 국영농장인 대유둔전을 설치하여 화성 경비에 충당되었다. 또한 정조가 수원에 행차할 때 한강을 안전하게 건너도록 배다리(주교)도 설계하였다.

경제적으로는 육의전 이외의 시전에 대한 전매 특권(금난전권)을 폐지하고 각종 상품에 대한 사상(私商)의 자유로운 매매를 인정한 상업정책을 반포하였다(1791, 신해통공).

① 조선 성종(1469~1494)은 집현전을 계승한 홍문관을 설치하여 경연을 전담케 하고 국왕의 자문과 대간(臺諫)의 언론 활동을 지원케 하였다(1478).

②, ④ 영조(1724~1776)는 탕평책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한양의 성균관에 봉당간의 다툼을 금하는 탕평비를 세웠고(1742), 백성들의 군역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군역법(군포를 1년에 2필에서 1필로 줄여줌)을 시행하였다.

⑤ 철종(1849~1863) 때에 임술농민봉기(1862)를 진압하고, 민란의 원인인 삼정의 문란을 바로잡고자 박규수의 건의에 따라 삼정이정청을 설치하였으나, 근본적 해결이 되지 못하였다.

29. 밑줄 그은 '임금'이 제위했던 시기의 사실로 옳은 것은? [3점]



- ① 신유박해로 천주교인들이 처형되었다.
- ②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게 되었다.
- ③ 홍경래 등이 봉기하여 정주성을 점령하였다.
- ④ 외척 간의 대립으로 을사사화가 발생하였다.
- ⑤ 자의 대비의 복상 문제로 예송이 전개되었다.

정답: ④

* 조선 중기 명종 대의 역사적 사실

명종(1545~1567)은 이복형인 인종(1544~1545)이 1년 만에 죽자 어린 나이(12세)로 임금이 되었으므로 어머니인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명종의 외척인 소윤(윤원형 일파)과 인종의 외척인 대윤(윤임 일파)의 갈등이 원인이 되어, 최대 규모의 사화인 을사사화(1545)가 발발하였다. 이 때 양편 모두에 사림이 연루되어 큰 희생이 있었다. 2년 뒤에도 양재역 벽서사건을 계기로 대윤의 잔당을 모두 숙청하였다(1547).

독실한 불교신자인 문정왕후는 수렴청정 기간 동안에 승려 보우의 건의를 받아들여 선교 양종 부활(1551) 및 도첩제와 승과가 부활되었다(1552).

그러나 문정왕후의 동생인 윤원형의 권세와 탐욕에 맞물려 수취제도가 극도로 문란해지며 농민 생활이 악화되어 각 지방에서 유민이 증가하였다. 유민 중 일부는 도적이 되어 양반과 중앙 정부로 바치는 물품을 빼앗기도 하였으며, 이들이 도성에까지 출현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황해도와 경기도 일대에서 활동한 임꺽정은 대표적인 인물이었다(1562년 처형됨).

①, ③ 세도정치가 시작된 순조(1800~1834) 즉위 직후 신유박해(1801)가 일어나 정약종, 주문모(중국인 신부) 등 300여 명의 천주교 신도가 처형당하고, 정약전, 정약용 등이 유배를 당하였고, 서북민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 대우에 반발하여 몰락 양반인 홍경래를 중심으로 영세농과 광산노동자들이 농민봉기를 일으켰다(1811). 이들은 선천, 정주 등을 점거하며 한때 청천강 이북 지역을 거의 장악하였으나 정주성 싸움에서 패하며 5개월 만에 평정되었다.

② 선조(1567~1608) 즉위 직후 그 동안 향촌에서 세력 기반을 다져 오던 사림 세력이 대거 중앙 정계로 진출하여 정국을 주도하게 되었으나, 사림 세력은 척신 정치의 잔재를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와 이조 전랑 자리를 놓고서 동인과 서인으로 분화되었다(1575)

⑤ 현종(1659~1674) 때에 효종과 효종비의 국상에서 자의대비(인조의 계비)의 복상 기간을 놓고 서인과 남인 사이에 기해년(1659)과 갑인년(1674)에 2차례의 예송 논쟁이 벌어졌다. 각각 서인과 남인이 승리하였다.

30. (가)에 들어갈 세시 풍속으로 옳은 것은?

[2점]

세시 풍속

액운 쫓고 더위 쫓는, (가)

(가) 은/는 음력 6월 보름날로 이날 동쪽으로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으면 나쁜 기운이 날아가고, 더위를 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날을 앞두고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하였으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일시 2019년 ○○월 ○○일 10:00~17:00

장소 △△문화원 야외 체험장

주최 ○○○○○

- ▶ 탁족 놀이 - 시원한 물에 발 담가 더위 쫓기
- ▶ 햇빛로 구슬 모양의 오색면 만들기 - 오색면을 색실에 꿰어서 허리에 매달아 액운 막기
- ▶ 수단 만들기 - 찰쌀가루, 밀가루로 경단을 만들어 얼음 꿀물에 넣어 먹기



① 동지 ② 한식 ③ 칠석 ④ 유두 ⑤ 삼진날

정답: ④

* 유두날의 세시풍속

음력 6월 15일은 복날을 전후로 한 무더운 여름날로 더위와 액운을 쫓기 위해 동쪽으로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는다 하여 '유두(流頭)날'이라 하였다.

이날은 시원한 물에 발을 담가 더위를 쫓는 탁족(濯足)을 하고, 음식을 장만해 산간 폭포에서 몸을 씻고 서늘하게 하루를 보낸다.

각 가정에서는 이날 유두면(流頭麵)·수단(水團)·건단(乾團)·상화(霜花)떡 등 여러 가지 음식을 해먹는다. 복(伏)중에는 '팔죽'을 쑤어 먹고, 고사리와 묵은 나물을 넣어 '개장'을 끓여 먹고, '삼계탕(蔘鷄湯)'도 먹는다.

허리 아픈 노인들은 해안지대 백사장에 가서 '모래뜸질'을 하고, 빈혈증이나 위장병이 있는 이들은 약수터에 가서 약수를 마신다.

① 동지(冬至): 대설(大雪) 15일 후, 소한(小寒) 전까지의 절기로, 양력 12월 22일경으로 일년 중 가장 밤이 긴 날이다. 민가에서는 붉은 팔죽을 쑤어 먹고 집안 곳곳에 뿌렸다.

② 한식(寒食): 춘추시대 진문공을 위해 충성하였지만 뒤늦은 그의 부름에 산속에서 나오지 않고 불에 타 죽은 개자추의 고사와 관련 있어 찬 음식을 먹고, 보통 성묘(省墓)를 한다. 동지(冬至)에서 105일째 되는 날. 양력으로 4월 5, 6일 경이다

③ 칠석(七夕): 음력 7월 7일. 헤어져 있던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날이라고도 한다. 이때는 옷과 책을 햇볕에 말리는 폭의(曝衣)와 폭서(曝書) 풍속이 있었다. 여름 장마철에 장롱속의 옷가지와 책장의 책에 습기가 차면 곰팡이가 끼게 되므로 이를 막기 위한 것이다. 한편 여인들이 직녀성에 바느질 솜씨를 비는 걸교(乞巧) 풍속이 있었다.

⑤ 삼진날: 음력 3월 3일. 강남에 간 제비가 돌아와 추녀 밑에 집을 짓는다는 때로, 이 무렵이면 날씨도 온화하고 산과 들에 꽃이 피기 시작한다. 이 때에는 진달래꽃을 뜯어다가 쌀가루에 반죽하여 참기름을 발라 지지는 화전(花煎)을 먹거나, 녹두가루를 반죽하여 익힌 다음 가늘게 썰어 꿀을 타고 잣을 넣어서 먹는 화면(花麵)을 즐겨 먹는다.

31. (가), (나)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가) 제7관 일본국 인민은 본국의 현행 여러 화폐로 조선국 인민이 소유한 물품과 교환할 수 있으며, 조선국 인민은 그 교환한 일본국의 여러 화폐로 일본국에서 생산한 여러 가지 상품을 살 수 있다.

(나) 제6칙 조선국 항구에 거주하는 일본 인민은 양미와 잡곡을 수출, 수입할 수 있다.

- ① (가) - 임오군란을 계기로 체결되었다.
- ② (가) - 최혜국 대우를 처음으로 규정하였다.
- ③ (나) - 조선책략의 영향으로 체결되었다.
- ④ (나) - 거중 조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 ⑤ (가), (나) - 조·일 수호 조규의 후속 조치로 체결되었다.

정답: ⑤

* 조일수호조규 부록과 무역규칙(1876.8)

1873년에 고종의 친정으로 흥선 대원군이 물러나고 민씨 세력이 집권하면서 개항과 통상 무역을 주장하는 집단이 정치적으로 성장하였다. 이런 움직임 속에서 일본은 한반도 침략을 노리며 윤요호 사건(무력시위)을 일으켰다(1875). 이를 계기로 조선은 일본과 강화도조약(1876.2, 조일수호조규)을 맺어 나라의 문을 열었다

강화도 조약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었지만, 부산 및 다른 두 곳을 개항해야 했으며, 일본에 치외법권(영사재판)과 해안(연안) 측량권 등을 내준 점에서 불평등 조약이었다.

이 조약에 이은 후속 조치인 동년 8월의 수호조규 부록과 무역규칙(통상장정)으로 간행이정 10리 제한, 개항장에서의 일본화폐 사용(이상 부록), 양곡의 무제한 유출, 일본 선박에 대한 무항세 및 일본 상품에 대한 무관세(이상 무역규칙) 등이 허용되었다.

① 임오군란(1882.6)을 진압한 청나라는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1882.8)을 체결하여 양화진을 통한 한성개잔권과 내지통상권을 얻어 도성의 시장과 개항장 밖 내륙 시장까지도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

②, ③, ④ 조선책략을 통해 청의 러시아의 남하와 일본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한 적극 알선과. 조선에서도 미국과 조약을 맺어 근대적 제도와 문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인천 제물포에서 서양 국가들 가운데 최초로 조미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되었다. 여기에는 양국 중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핍박을 받을 경우 반드시 서로 돕고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도록 주선한다는 거중조정 조항(1조), 수출입 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 조항 등 강화도조약과 달리 우리에게 유리한 조항이 들어 있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치외법권(4조), 최혜국대우(14조) 등이 포함된 불평등한 조약이었다. 특히 제3국의 가장 좋은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최혜국대우 조항은 조미수호통상조약에서 처음 규정되었다

32. 다음 자료에 나타난 사건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해산 결의 이틀 전 오전에 군부 대신과 하세가와 대장이 통감부에 모여 현재 한국 군대를 해산하기로 결정한 결과로, 같은 날 오후 9시 40분에 총리와 법무 대신이 황제에게 아뢰고 후에 조칙을 반포하였더라.

- 대한매일신보 -

- ① 민영환, 조병세 등이 자결로써 항거하였다.
- ② 13도 창의군이 서울 진공 작전을 전개하였다.
- ③ 메가타가 주도한 화폐 정리 사업이 시작되었다.
- ④ 고종이 헤이그 만국 평화 회의에 특사를 파견하였다.
- ⑤ 구식 군대가 난을 일으켜 일본 공사관을 습격하였다.

정답: ②

* 군대해산 이후의 역사적 사실

일제의 헤이그 특사 사건을 빌미로 한 고종의 강제 퇴위(1907.7)와 군대 해산(1907.8)으로 인하여 정미의병(1907~1908)이 일어났다. 해산된 군인들이 합류하여 조직력과 화력이 강화되어 단순한 의병운동이 아닌 조직적인 의병전쟁으로 발전하였다. 또한 13도의 의병이 총 합류하여 각국 공사관에 국제법상 교전단체로 인정해 줄 것을 통보하고 서울로 단번에 진공하는 서울진공작전(1908)을 추진하였으나 지도부의 문제(부친상을 당한 총대장 이인영의 낙향과 신돌석, 홍범도 등의 평민 출신 의병장 배제)로 실패하였다. 대표적인 의병장으로는 이인영, 허위 등이 있다

① 외교권을 박탈당하는 을사조약(1905.11)이 체결되자 현직 관리인 민영환, 조병세 등이 자결하였다.

③ 일본인 재정고문 메가타에 의해 실시된 화폐정리사업(1905.7~1909.11)은 우리나라의 상평통보나 백동화를 일본 제일은행에서 발행한 화폐로 바꾸도록 한 것으로, 그 결과 국내 상공업자들과 민간 은행들이 큰 타격을 받았다.

⑤ 개항 후 창설된 신식 군대인 별기군에 비하여 2명의 구식 군인들에 대한 대우는 매우 열악하였다. 심지어 민씨 일파 등 집권층의 부패로 구식 군인에게 13개월 만에 월급으로 지급한 쌀에는 겨와 모래가 섞여 있었다. 이에 구식 군인들은 마침내 폭발하여 선혜청을 습격하며 임오군란을 일으켰다(1882.6). 이들은 정부 고관들의 집을 부수고 일본 공사관을 습격하였다. 이

33.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가) 은/는 안창호, 양기탁, 이승훈이 중심이 되어 조직한 비밀 결사 단체로, 국권을 회복한 뒤 공화 정체의 국가를 수립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실력 양성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무엇보다 국민을 새롭게 할 것을 주장하였다.

- ① 연통제를 통해 독립운동 자금을 모았다.
- ② 일제의 항무지 개간권 요구를 저지하였다.
- ③ 중추원 개편을 통해 의회 설립을 추진하였다.
- ④ 복벽주의를 내세우며 의병 전쟁을 준비하였다.
- ⑤ 남만주 삼원보에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였다.

정답: ⑤

* 애국계몽운동단체 신민회

신민회는 1907년 4월, 국권의 회복과 공화 정체의 국민 국가 건설을 목표로 안창호, 양기탁 등 거의 모든 독립운동가들이 참여하여 결성한 비밀결사 애국계몽운동단체이다. 국내에서는 문화·경제적 실력양성 운동을 전개하면서 국외에서는 독립군 기지의 건설에 의한 군사적 실력 양성(서간도 삼원보: 경학사, 신흥강습소->신흥무관학교)을 꾀하다가 한일병합 이후인 1911년, 105인 사건(데라우치 총독 암살 미수사건이 날조되어 신민회 회원과 관련이 있는 안악사건으로 확대되어 105인이 기소된 사건)으로 해체되었다.

관련 활동으로 언론으로는 양기탁의 대한매일신보, 교육으로는 안창호의 대성학교(평양), 이승훈의 오산학교(정주) 등이 있으며, 민족자본 형성을 위해 산업으로는 평양에 자기회사와 출판회사인 태극서관 등을 설립하였다.

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재정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애국 공채를 발행하고, 국민 의견을 건어들여 군자금을 마련하고 이룡양행(만주)과 백산 상회(부산)를 거쳐 국내외를 연계하는 조직망인 연통제와 교통국 등을 통하여 상해로 전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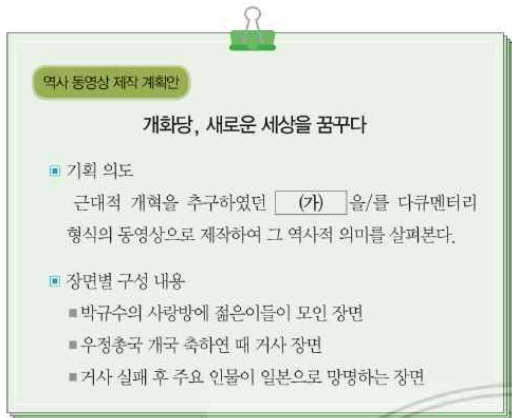
② 최초의 애국계몽운동단체 보안회는 일본이 항무지 개간권을 요구하자 농광회사를 세우며 반대운동을 벌여 이를 저지시켰다(1904).

③ 독립협회는 만민공동회와 관민공동회를 개최하며 중추원을 의회식으로 개편하는 헌의 6조(1898.10)를 건의하기도 하였다.

④ 1912년 임병찬이 고종의 밀지를 받아 국내 비밀결사 조직한 독립의군부는 의병을 모아 일제를 몰아내어 대한제국을 재건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복벽주의).

34. (가)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김옥균, 박영효 등이 주도하였다.
- ② 김기수를 수신사로 일본에 파견하였다.
- ③ 구본신참에 입각한 개혁을 추진하였다.
- ④ 개화 정책을 총괄하는 통리기무아문을 설치하였다.
- ⑤ 개혁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 흥범 14조를 반포하였다.

정답: ①

* 갑신정변

임오군란(1882.6) 이후, 청나라는 조선 내정에 대한 간섭과 경제 침략을 강화하였다. 이에 반발한 김옥균, 박영효 등 급진적 개화 세력(개화당)은 일본의 메이지유신을 모델로 하고, 일본의 군사적 지원을 받아 갑신정변을 일으켰다(1884.12).

김옥균 등의 급진 개화파 요인들은 1884년 12월 흥영식이 총판으로 있던 우정총국 건물 완공의 축하연회를 이용하여 정변을 일으켰다.

이들은 개혁정강 14조에서 청과의 의례적 사대 관계(조공)를 폐지하고, 입헌 군주제(헌법에 의해 국왕의 권력을 제한)적 정치 구조를 지향하면서, 문벌 폐지, 인민 평등권과 능력에 따른 인재 등용을 주장하였다. 또, 지조법을 실시하고, 호조로 재정을 일원화하며, 해상공국을 폐지하여 자유로운 상업의 발전을 꾀하였다.

하지만, 개화파 정권은 청군의 개입으로 3일 만에 무너지고 말았다. 이는 갑신정변 추진 세력의 정치·군사적 기반이 약했고, 민중의 지지 속에 정변을 성공시키기보다는 외세에 의존하는 방법을 택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갑신정변은 근대 국민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한 최초의 정치 개혁 운동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②, ④ 개항 직후인 1876년 일본에 수신사로 김기수를 파견하여 일본의 개화 실정을 살펴 보게 하였고, 개화 정책을 전달할 기구로 통리기무아문(1880.12)을 설치하였다.

③ 대한제국은 “옛 제도를 근본으로 하고 새로운 제도를 참작한다.”라는 구본신참의 개혁 방향을 제시하고 광무개혁을 실시하였다.

⑤ 2차 갑오개혁(1894.12~1895.7)을 시작하며 고종은 흥범 14조(1895.1)를 발표하여 개혁의 강령을 선포하였다

35. (가)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 ① 을사늑약에 반발하여 봉기하였다.
- ② 백낙신의 탐학이 발단이 되어 일어났다.
- ③ 집강소를 중심으로 폐정 개혁안을 실천하였다.
- ④ 유계춘을 중심으로 봉기하여 진주성을 점령하였다.
- ⑤ 홍의장군으로 불린 광재우가 의병장으로 활약하였다.

정답: ③

* 동학농민운동

동학농민운동은 1894년 2월 전라도 고부에서 시작되었다. 전봉준을 중심으로 한 농민층은 고부 군수 조병갑의 탐학에 맞서 봉기하여 관아를 일시 점령하였으나 후임 군수 박원명의 회유에 의해 해산하였다.

그러나 안핵사 이용태에 의한 정부의 동학농민 탄압에 저항하여 4월 보국안민과 제폭구민을 내세우며 다시 봉기하였다(1차 봉기: 무장 기포 -> 백산 봉기). 이후 황토현(5.8), 황룡촌(5.25)에서 각각 감영군과 경군에 승리하며 전주성을 점령하고 전라도 일대를 장악하였다.

한편 정부의 요청에 의해 청군이 출동하고 텐진조약에 의해 일본군도 출동하자, 6월 정부와 농민군은 전주에서 화약을 맺고 폐단이 많은 정치를 개혁하기로 합의하고(전주화약), 이후 농민군은 전라도 53개 군에 자치행정기구인 집강소를 설치하여 개혁을 실천해 나갔다.

그러나 7월 일본군이 청·일 전쟁을 일으키면서 경복궁을 점령하며 내정을 간섭하자, 전봉준이 이끄는 농민군은 10월 다시 봉기(2차 봉기: 삼례 집결)하여 남접과 북접의 농민군이 연합부대를 형성하고(11월 초, 논산에 대본영 설치), 외세를 몰아내기 위하여 서울로 진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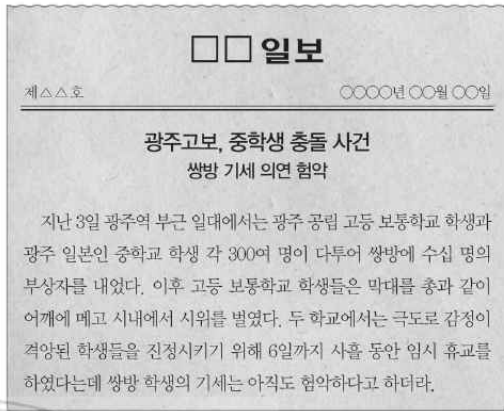
하지만 우리나라에 파견된 우세한 무기로 무장한 일본군에게 농민군은 12월 공주 우금치에서 패하고, 지도부가 체포되면서 이 운동은 실패로 끝났다.

① 외교권을 박탈당하는 을사조약(1905.11)에 반발하여 을사의병이 발발하였다(1895).

②, ④ 세도정치기 최대 농민봉기인 임술농민봉기는 진주를 중심으로 확산되었다. 진주에서의 농민봉기(1862)는 경상 우병사 백낙신의 수탈에 견디다 못한 농민들이 몰락한 양반 출신인 유계춘 등을 중심으로 일으킨 것이었다.

⑤ 임진왜란 때의 의병은 경상도 의령에서 광재우가 처음 일으켰고 홍의장군이라 불리우며 활약하였다.

36. 다음 기사에 보도된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순종의 인산일을 계기로 일어났다.
- ② 일제의 무단 통치를 완화시키는 배경이 되었다.
- ③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수립되는 계기가 되었다.
- ④ 대한매일신보의 후원 속에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 ⑤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동맹 휴학의 도화선이 되었다.

정답: ⑤

* 광주항일학생운동

1929년 11월 3일 한·일 학생 간의 충돌 사건을 계기로 민족차별과 식민지 교육에 저항하는 학생시위가 광주에서 일어났다. 일제의 일제의 보도 통제에도 불구하고 학생시위는 인근의 나주와 목포로 확산되었으며, 일반 시민들도 시위에 가담하였다.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전국에 알려지자 신간회(1927~1931) 등 민족 운동 단체에서는 진상 조사에 나섰고, 서울에서는 학생과 민족의 총결기를 요구하는 격문이 나돌았다. 이에 일제는 조기 방학을 실시하여 고양된 분위기를 가라앉히려 하였다. 이듬해 1월에 서울에서 신학기를 맞은 학생들이 결기를 시작하였다. '식민지 노예 교육 철폐', '조선 독립 만세'를 내건 시위는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일제의 탄압에 학생들은 가두 시위나 동맹 휴학으로 맞섰다.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은 각급 학교 학생들이 참가함으로써 3·1 운동 이후 최대의 민족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스스로가 독립운동의 주역임을 확인하였다.

① 사회주의자와 학생들이 순종 인산일을 기회로 만세운동을 계획하였으나 사회주의자들이 추진한 계획은 사전에 발각되었고, 학생들은 그대로 추진하며 6.10 만세운동이 일어났다(1926).

②, ③ 거족적으로 만세시위를 벌인 3.1운동(1919)은 우리민족에게 독립의 자신감을 심어주어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일제의 통치를 유화적인 문화통치로 바꾸는 배경이 되었다.

④ 국민의 모금으로 나라빚을 갚자는 국채보상운동(1907)은 대한매일신보, 황성신문, 제국신문 등의 거의 모든 민족 언론 단체들이 참여하며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37. (가), (나) 사이의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천지에 고하는 제사를 지냈다. 왕태자가 배참하였다. 예를 마친 뒤 의정부 의정 심순택이 백관을 거느린 채 무릎을 꿇고 아뢰기를, “제례를 마쳤으므로 황제의 자리에 오르소서.” 라고 하였다. …… 임금의 두 번 세 번 사양하다가 옥새를 받고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

- 『고종실록』 -

(나) 이제 본소(本所)에서 대한민국 국제(國制)를 잘 상의하고 확정하여 보고하라는 조칙을 받들어서, 감히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수집하고 공법(公法)을 참조하여 국제 1편을 정함으로써, 본국의 정치는 어떤 정치이고 본국의 군권은 어떤 군권인가를 밝히려 합니다.

- 『고종실록』 -

- ① 영화 아리랑을 관람하는 교사
- ② 관민 공동회에서 연설하는 백정
- ③ 육영 공원에서 영어를 배우는 학생
- ④ 경부선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가는 기자
- ⑤ 근우회가 주최한 강연회에 참석하는 노동자

정답: ②

* 대한제국 출범(1897.10)과 대한국국제(1899.6) 제정 사이의 역사적 사실

아관 파견(1896.2) 이후 열강의 침탈이 더욱 심해지는 가운데 고종의 환궁을 요구하며, 고종을 황제로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다. 이에 고종은 1년 만에 러시아 공사관에서 경운궁으로 돌아왔다(1897.2).

환궁 후 고종은 연호를 광무라 고친 후 환구단을 쌓아 황제 즉위식을 하고 국호를 대한제국이라 선포하였다(1897.10).

대한제국은 ‘만국공법’에 기초하여 건국된 국가로, 고종은 국내외에 대한 제국이 자주 독립 국가임을 분명히 하였다.

1899년에는 헌법이라 할 수 있는 ‘대한국 국제’를 제정하여 황제가 군대 통수권, 입법권, 행정권 등 모든 권한을 장악한 전제 군주임을 강조하였다(의회와 국민 기본권, 참정권 규정 全無).

① 민족 의식을 일깨운 영화 나운규의 아리랑은 1926년 극장 단성사에서 상영되었다.

② 독립협회가 주관한 관민공동회에서 백정 출신 박성춘의 연설하기도 하였다(1898.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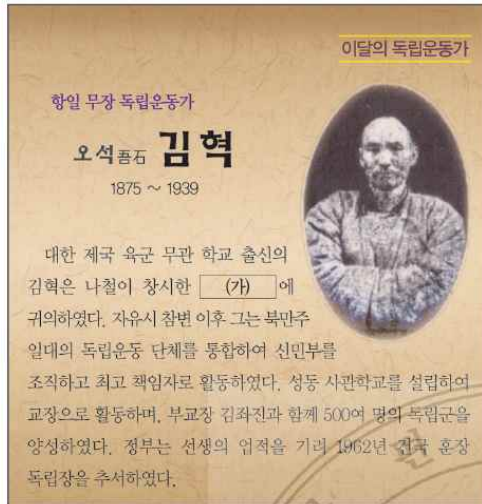
③ 개항 후 정부에서는 육영공원(1886~1894)을 세우고 험버트 등 미국인 교사 세 사람을 초빙하여 주로 양반 자제들에게 신지식과 외국어를 가르쳤다

④ 일본은 대륙 침략을 위해 1898년 경부선 철도 부설권을 얻어내고 ‘경부철도합동조약’을 체결하여 경부선(1901~1905)을 건설하였다(1905.1.1. 개통·영업 시작).

⑤ 신간회(1927~1931)의 자매 단체로 근우회(1927~1931)가 설립되어 여성 계몽활동과 함께 여성 노동자의 권익 옹호에 앞장섰다.

38. (가) 종교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개벽, 신여성 등의 잡지를 발행하였다.
- ② 만세보를 발행하여 민중 계몽에 힘썼다.
- ③ 여성 교육을 위해 이화 학당을 설립하였다.
- ④ 중광단을 조직하여 무장 투쟁을 전개하였다.
- ⑤ 박종빈을 중심으로 새생활 운동을 추진하였다.

정답: ④

* 대종교

을사5적 암살단을 이끌던 나철(1863~1916), 오기호(1863~1916) 등은 1909년에 단군 신앙을 받드는 대종교를 창시하였다.

대종교는 국권 피탈 후 교단을 만주로 옮기고 많은 민족 학교를 설립하였고, 서일(1881~1921)을 단장으로 하여 중광단(1911)을 결성하였고, 대한독립선언(1918.11)을 주도하였다.

중광단은 3·1 운동을 전후로 하여 정의단, 군정부를 거쳐 북로 군정서(총재 서일, 사령관 김좌진)로 개편되어 청산리대첩(1920.10) 등 적극적인 항일 무장 투쟁을 전개하였다.

①, ② 동학을 계승한 천도교는 신문으로 만세보(1906), 잡지로는 개벽(1920), 신여성(1923), 어린이(1923) 등을 간행하며 문화·계몽 운동을 전개하였다.

③ 최초의 근대식 여성 사립학교 이화학당은 미국 개신교 감리교 선교사 스크랜튼 부인이 설립하였다(1886).

⑤ 박종빈이 창시한 원불교(1916)는 개간 사업과 저축 운동을 전개하여 민족의 자립정신을 기웠으며 남녀평등을 내세웠다.

39. 밑줄 그은 '사람'이 소속된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어제 12일 상오 10시 20분에 조선 총독부에 폭탄 두 개가 투척되었다. 비서과 분실 인사계실에 던진 한 개는 책상 위에 떨어져서 폭발되지 아니했으며, 다시 회계 과장실에 던진 한 개는 유리창에 맞아 즉시 폭발되어 유리창은 산산이 부서지고 마루에 떨어져서 주먹 하나가 들어갈 만한 구멍을 뚫었다. 폭탄을 던진 사람은 즉시 종적을 감추었으므로 지금 엄중 탐색 중이요, 폭발 소리가 돌연히 일어나자 총독부 안은 물 끓듯 하여 한바탕 이수라장을 이루었다더라.

- ① 조선 혁명 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았다.
- ② 윤봉길, 이봉창 등이 단원으로 활동하였다.
- ③ 파리 강화 회의에 독립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 ④ 신흥 무관 학교를 세워 독립군을 양성하였다.
- ⑤ 독립군 비행사 육성을 위해 한인 비행 학교를 세웠다.

정답: ①

* 의열단

의열단은 1919년 만주 길림에서 김원봉, 윤세주 등이 중심이 되어 조직되었다. 그들은 끊임없는 개인 폭력 투쟁을 통해 독립을 쟁취하려는 목적으로 조선 총독부의 고위 관리나 친일파 거두 등을 처단하고, 조선 총독부나 경찰서, 동양 척식 주식 회사 등 식민지 착취 기관을 파괴하려 하였다.

그리하여 1920년 부산 경찰서(박재혁)를 시작으로 밀양 경찰서(1920, 최수봉), 종로 경찰서(1923, 김상옥), 조선 총독부(1921, 김익상), 도쿄의 일본 왕궁(1924, 김지섭), 식산은행과 동양 척식 주식 회사(나석주, 1926) 등에 폭탄을 던지는 거사를 감행하였다. 그들의 이러한 활동은 일제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고, 동포들에게는 항일 의식과 독립에의 희망을 심어 주었다.

김원봉의 요청에 따라 신채호가 작성한 '조선 혁명 선언(1923)'에는 의열단의 행동 강령과 개인 폭력 투쟁을 통해 민중 직접 혁명을 달성하려는 의열단의 목표가 잘 드러나 있다.

그러나 1925년부터 의열단은 방향 전환을 모색하였다. 암살이나 파괴만으로는 민족 해방 운동을 조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여겨, 대원을 황푸군관 학교에 입교시키고, 조선 혁명 간부 학교를 설립하여 조선인 간부를 양성하였다(1932).

② 1920년대 후반 이후 침체기에 빠진 임시정부에 활기를 불어 넣기 위해 김구가 1931년 결성한 한민애국단은 이봉창(1932.1, 천황 마차에 폭탄 투척-실패)과 윤봉길(1932.4, 상해 홍구 공원 의거-시라카와 대장 등 다수 살상)의 의거를 일구어냈다.

③ 중국 상하이에서 1918년 결성된 신한청년단 소속의 김규식은 1919년 2월 파리강화회의에 참석하여 독립청원서를 제출하였

④ 서간도 삼원보에 이회영, 이상룡 등의 신민회 회원들이 집단 이주하여 민족 운동 단체인 경학사를 조직하고, 독립군을 양성을 위해 신흥 강습소(후일 신흥 무관 학교)를 설립하였다(1911).

⑤ 대한제국의 무관 출신이자 임정의 군무부장을 지낸 노백린(1875~1926)은 독립군 비행사 양성을 위해 1920년 미주 캘리포니아에서 한인 비행 학교를 세웠다.

40. 다음 자료에 나타난 상황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중·일 전쟁이 시작된 이후 지금 막 두 번째 겨울을 났다. 우리는 벌써 난방용 석탄이나 심지어 연탄을 구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터무니없이 비싼 값을 치르고 산 연탄이라는 것도 고작 석탄 가루를 묻힌 진흙덩이에 불과하다. 전쟁이 1년만 더 지속된다면, 석탄은 고사하고 지금은 그나마 구할 수 있는 연탄조차 그림의 떡이 될 것이다. 총독부는 주민들에게 갖고 있는 금붙이를 팔라고 요구한다. 아녀자들은 가보로 내려오던 패물을 내놓고 있다.

- 「윤치호 일기」 -

- ① 조선 농민 총동맹이 결성되었다.
- ② 사회주의 세력이 정우회 선언을 발표하였다.
- ③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건국 강령을 발표하였다.
- ④ 독립군 연합 부대가 청산리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
- ⑤ 노동 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원산 노동자 총파업이 전개되었다.

정답: ③

* 중일전쟁 발발(1937.7) 2년 이후의 역사적 사실

일제는 만주사변(1931.9)을 일으키어 만주국을 수립하고(1932.3), 노구교 사건을 빌미로 중국 본토를 점령하기 위해 중일전쟁을 일으켰다(1937.7)

① 노동자 농민의 공동 조직인 조선노동총동맹(1924)은 1927년 ‘조선노동총동맹’과 ‘조선농민총동맹’으로 분리되며, 노동쟁의와 소작쟁의 모두 전국적 조직으로 커지며 쟁의는 더욱 확산되었다.

② 일제의 치안유지법(1925)으로 탄압받던 사회주의 세력은 1926년 11월 ‘정우회 선언’을 발표하여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 제휴할 수 있음을 천명하였다.

③ 임정의 여당인 한국독립당은 1941년 11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무위원을 통해 정치·경제·교육의 평등을 보장하는 삼균주의에 입각한 건국정신을 표방한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발표하였다.

④ 김좌진이 이끄는 북로군정서와 홍범도가 이끄는 대한독립군 등 여러 독립군 부대들이 연합하여 일제하 최대의 승전인 청산리 대첩을 이루어냈다(1920.10)

⑤ 원산 문평 라이징 선 석유회사의 일본인 감독에 의한 민족차별 대우에 기인하여 원산 노련이 주도한 원산 노동자 총파업(1929)은, 4개월간 투쟁하며 국내외의 지지와 성원을 얻었다.

41.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이것은 홍사령 박상진이 이끌었던 (가) 소속의 김한중 의사 순국 기념비입니다. 김한중 의사는 이 단체의 충청도 지부장으로 군자금 모금을 방해한 아산의 도고 면장인 박용하 처단을 주도하였습니다. 일제 경찰에 체포되어 박상진과 함께 대구 형무소에서 순국하였습니다. 1963년 건국 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습니다.



- ① 공화 정체의 국가 건설을 지향하였다.
- ②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주도로 결성되었다.
- ③ 봉오동에서 일본군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었다.
- ④ 구미 위원부를 설치하여 외교 활동을 전개하였다.
- ⑤ 중국군과 함께 영릉가 전투에서 큰 전과를 올렸다.

정답: ①

* 대한광복회

1910년대 국내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한 항일단체로, 채기중의 (대한)광복단(1913)과 이시영, 서상일 등 경북 유림이 중심이 된 조선국권회복단(1915.1)이 통합하여 출범한, 즉 의병 계열과 애국계몽운동 계열의 비밀결사들을 통합한 비밀결사체이다(1915.7). 총사령은 박상진이고 양반과 상민이 함께 가입하여 활동했고 지도급 인사들 중에는 근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많았다.

대한광복회는 독립군을 길러 일제를 몰아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었으며, 독립 의군부(임병찬이 고종의 밀지에 따라 의병을 모아 1912년 조직, 총독부에 국권반환요구서 제출 시도)와는 달리 북벌주의(대한제국 재건)를 극복하고 공화정체의 근대 국민 국가의 수립을 지향하였다. 이를 위해 군대식 조직을 갖추고 있었으며, 국내는 물론 만주에도 지부를 설치하고 독립군 양성에 노력하였다(김좌진 파견). 독립 전쟁에 필요한 군자금 마련을 위해 일제의 재산을 빼앗고 부호들에게 의연금을 걷었으며, 협조하지 않는 친일 부호를 처단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결국 일제 경찰에게 전국의 조직망이 발각되어 해체되고 말았다(1918). 이 때 박상진 등 주요 인물이 검거되고 사형 당하였지만 체포를 피한 일부 조직원들은 만주로 망명하여 무장 독립 투쟁을 계속하였다.

②, ④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초기에 미국에 구미 위원부(1919.9)를 두어 이승만을 중심으로 외교 활동을 전개하였고, 군사적으로는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아 각처에 흩어져 있던 무장 투쟁 세력을 모아 충칭에서 한국 광복군을 창설하였다(1940.9).

③ 홍범도가 이끄는 대한독립군이 중심이 되어 봉오동에서 일본군을 대파하였다(1920.6).

⑤ 1930년대 초 남만주(서간도)에서 활동하던 조선 혁명군은 양세봉의 지휘 아래 중국 의용군과 연합하여 영릉가 전투와 흥경성 전투에서 일본군을 크게 물리쳤다.

42. 다음 선언서가 발표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2점]

본 국민 대표 회의는 이천만 민중의 공정한 뜻에 바탕을 둔 국민적 대화합으로 최고의 권위를 지녀 독립을 완성하기를 기도하고 이에 선언하노라. 본 대표 등은 국민이 위탁한 사명을 받들어 국민적 대단결에 힘쓰며 독립운동이 나아갈 방향을 확립하여 통일적 기관 아래서 대업을 완성하고자 하노라.

1919	1925	1931	1935	1940	1945
(가)	(나)	(다)	(라)	(마)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	박은식 대통령 취임	한인 애국단 조직	한국 국민당 창당	김구 주석 취임	8·15 광복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정답: ①

* 국민대표회의(1923)

1919년 9월 통합 임시정부가 출현하였지만 임시정부 초기의 외교활동이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1921~1922년에 교통국과 연통제 조직이 일제에 의해 와해되어 자금 조달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의 국제연맹 위임통치 요청 문제가 계기가 되어 임시정부는 내분에 빠져들었다.

임시정부의 외교 활동에 비판적인 신숙과 신채호 등은 군사통일 준비회를 열고, 이승만을 불신임하면서 독립운동 전체의 방향 전환을 논의하기 위한 국민대표 회의의 개최를 주장하였다. 이에 만주와 연해주의 독립운동가들이 동조하였다.

국내외 여러 독립운동 단체 대표 140여 명이 참가한 국민대표 회의가 상하이에서 1923년 1월에 열렸다(안창호 제기, 임시의장). 회의에서는 독립운동 과정을 평가·반성하는 한편, 임시정부의 존폐를 둘러싸고 토론하였다. 토론에서 임시정부를 해체하고 새로운 정부 수립을 주장하는 창조파(신채호, 신숙, 문창범)와 임시정부의 개조를 주장하는 개조파(안창호, 여운형, 김동삼)가 대립하였다. 두 입장의 차이를 좁히지 못해 회의는 결렬되었다.

이후 창조파는 연해주에 독자적인 정부를 수립하였으나 소련 정부의 퇴거 요구로 새 정부는 해체되었다. 한편 임시정부는 1925년에 이승만을 탄핵하고 박은식을 대통령으로 선출하였다. 이후 헌법 개정을 통해 집단 지도 체제를 채택하는 등 체제 정비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떠난 가운데 내각조치 구성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으며 침체에 빠졌다.

43. 다음 문서가 작성된 당시에 실시된 일제의 정책으로 옳은 것은? [2점]

안으로는 세계적 불안의 여파를 받아서 우리 조선 내부의 민심도 안정되지 못하였다. …… 다른 한편으로는 지방 자치를 실시하여 민의 창달의 길을 강구하고, 교육 제도를 개정하여 교화 보급의 신기원을 이루었고, 계도가 위생적 시설의 개선을 촉진하였다. …… 일본인과 조선인 사이의 차별 대우를 철폐하고 동시에 조선인 소장층 중 유력자를 발탁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군수·학교장 등에 발탁된 자가 적지 않다.

— 사이토 마코토, 「조선 통치에 대하여」—

- ① 노동력 동원을 위해 국민 징용령을 시행하였다.
- ② 한국인에 한해 적용되는 조선 태형령을 공포하였다.
- ③ 쌀 수탈을 목적으로 하는 산미 증식 계획을 실시하였다.
- ④ 독립운동 탄압을 위한 조선 사상범 보호 관찰령을 공포하였다.
- ⑤ 회사 설립 시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회사령을 제정하였다.

정답: ③

* 1920년대 일제의 경제정책

3.1운동 직후 부임한 일본 조선 총독 사이토 마코토는 문화통치의 일환으로 1920년대에 도평의회와 부면 협의회를 설치하였다. 지방자치를 하는 듯이 보이나, 실상은 자치 방식이 아닌 동화주의이고, 내선융화로서 동화의 주요 대상은 중상류층 또는 지식인 계급이었다.

경제적으로는 미곡 증산을 표방한 산미증식 계획(1920~1934, 1940년 재개)을 시작하였다. 더 많은 쌀을 일본으로 가져가기 위해 추진된 이 사업을 통해 대부분의 지주는 다소 이익을 보기도 했지만, 소작농은 수리 조합이나 비료 대금을 비롯한 각종 비용 부담이 늘어나면서 많은 고통을 겪었다. 또한, 늘어난 생산량보다 더 많은 양의 쌀이 일본으로 실려 나갔다. 한편, 일본 자본의 조선 진출 요구가 커지자 1920년에 일제는 회사 설립을 신고제로 바꾸었다(회사령 폐지).

①, ④ 1930년대 이후 일제는 민족말살통치를 실시하였다. 1936년 ‘조선 사상범 보호 관찰령’을 공포하여 한국인 형기를 마친 사상범도 지속적으로 탄압하였고, 국민징용령(1939)을 시행하여 한국인 노동력을 착취하였다.

② 일제는 1912년, 조선인에게만 적용되어 매질을 가하는 야만적인 조선 태형령을 제정하였다(~1920).

⑤ 회사령(~1920)을 통해서는 회사를 설립하거나 해산할 때에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한국인의 자유로운 기업 설립을 방해하였다.

44.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가) 은/는 '우리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각성을 촉진함, '우리는 단결을 공고히 함, '우리는 일체 기회주의를 부인함'이라는 3대 강령 하에서 탄생되어 금일까지 140개 지회의 39,000여 명의 회원을 포함한 단체가 되었다.

- 『동광』 -

- ① 민족 유일당 운동의 일환으로 결성되었다.
- ② 이상설, 이동휘를 정·부통령에 선임하였다.
- ③ 일제가 조작한 105인 사건으로 조직이 해체되었다.
- ④ 조선 총독부에 국권 반환 요구서를 발송하려 하였다.
- ⑤ 오산 학교와 대성 학교를 세워 민족 교육을 실시하였다.

정답: ①

* 신간회에 대하여

1920년대 중반에 비타협적인 민족주의 세력은 타협론자들의 자치운동(기회주의)을 경계하며, 사회주의 세력과 연대하여 이를 저지하려 하였다. 치안유지법(1925)으로 탄압받는 사회주의 세력도 1926년 '정우회 선언'을 발표하여 이에 호응하여 결국, 비타협적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들은 이념과 노선의 차이를 뛰어넘어 민족협동전선(민족유일당)을 결성하기로 의견을 모아 합법적 단체인 신간회가 창립되었다(1927, 회장 이상재)

신간회는 한국인 본위의 교육 실시, 착취 기관 철폐 등을 주장하였고, 사회 운동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특히, 원산 노동자 총파업의 지원, 갑산 화전민 학살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운동을 전개하였다. 또, 1929년 11월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일어나자 현지에 조사단을 파견하고, 조사 결과를 발표할 민중 대회를 준비하였으나, 경찰의 탄압으로 좌절되었다.

신간회는 민중 대회 사건 후, 새 집행부의 투쟁 방법을 둘러싸고 내부에서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 사이에 대립이 생겨 해소되고 말았다(1931). 하지만, 신간회는 국내 민족 운동 세력의 역량을 총결집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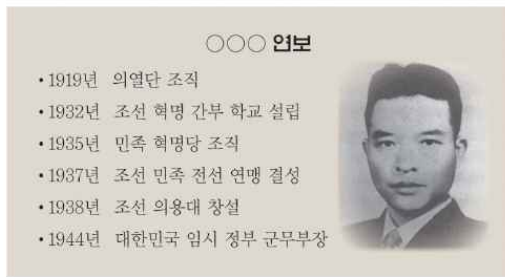
② 노령 연해주 신한촌에서 권업회를 기반으로 이상설, 이동휘 등은 군정기관으로 대한 광복군 정부를 조직하여 군사활동을 준비하였다(1914).

③, ⑤ 1907년 설립된 애국계몽운동단체 신민회는, 회원인 이승훈이 평북 정주에서 오산학교(1907)를, 안창호는 평양에서 대성학교(1908)를 설립하여 민족교육을 시키었으나, 한일병합 후 데라우치 총독 암살미수사건과 관련된 안악 사건 날조에 의해(105인 사건) 해체되고 말았다(1911).

④ 1910년대 대표적인 국내 비밀결사 조직으로 임병찬이 고종의 밀지에 따라 의병을 모아 1912년 조직한 독립 의군부는 독립군을 길러 일제를 몰아내어 대한제국을 재건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었다(복벽주의). 일본 정부와 총독부에 국권반환요구서 제출을 시도하다 발각되어 해체되었다(1914).

45.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대조선 국민 군단을 조직하였다.
- ② 한국광복군 부사령관으로 활약하였다.
- ③ 하얼빈 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였다.
- ④ 한국 독립군을 이끌고 쌍성보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 ⑤ 일제의 패망과 광복에 대비하여 조선 건국 동맹을 결성하였다.

정답: ②

* 의열단을 이끈 김원봉에 대하여

경남 밀양 출신인 김원봉은 1919년 11월 만주 지린성에서 의열단을 조직하였다. 당시 만주와 중국 본토에서 조직된 독립운동단체들이 미온적이고 온건하다고 본 의열단은 직접적 투쟁방법인 암살과 파괴·테러라는 과격한 방법을 통해 독립운동을 해나기로 했다. 김상옥(1923, 종로경찰서 폭탄 투척), 김익상(1921, 조선총독부 폭탄 투척), 나석주(1926, 동.척과 식산은행 폭탄 투척) 등의 의거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김원봉은 1925년 이후로 노선을 바꿔 중국 황포군관학교에 입교한 이래로 이 학교에 포진된 공산주의 교수진의 영향을 받아 조선혁명간부학교를 설립하고(1932), 정당 조직(후일 1935년 민족혁명당 결성)과 군사 조직(후일 1938년 조선 의용대 결성) 형성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1935년 중국 관내에서 민족유일당으로 형성된 조선 민족 혁명당은 1937년 중·일 전쟁이 시작되자 공산주의 정당과 연합하여 조선민족전선연맹을 결성하고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아 조선 의용대를 창설하였다(1938).

조선 의용대는 의열단 출신의 김원봉을 중심으로 하여 중국 국민당 군대와 함께 선전 활동, 일본군 포로 심문 등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조선의용대의 대원이 화북 지역으로 이동한 후 김원봉과 남은 세력들은 임시정부(군무부장)와 한국 광복군(부사령관 겸 1지대장)에 합류하였다(1942).

이후 김원봉은 해방이 되자 임정 요인들과 남한으로 입국하였고, 통일정부를 위한 좌우합작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신탁통치반대운동을 주도하던 임시정부측이 좌우합작을 거부하자 비상국민회의(우파 연합전선)에서 탈퇴하고 민주주의민족전선(좌파 연합전선)에 합류하였다. 1946년 6월에는 조선민족혁명당을 인민공화당으로 개칭하고 지속적으로 연합전선구축에 노력하였으나, 1947년 7월 여운형이 암살되고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이 본격화되자 1948년 4월 남북협상 때에 입북하였다. 그 뒤 북한에서 국가검열상·내각 노동상·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등을 역임하였으나 연안파로 몰려 1958년 11월 숙청당하였다.

① 박용만(1881~1928)은 1914년 미주 하와이에서 대조선 국민군단을 결성하여 무장투쟁을 준비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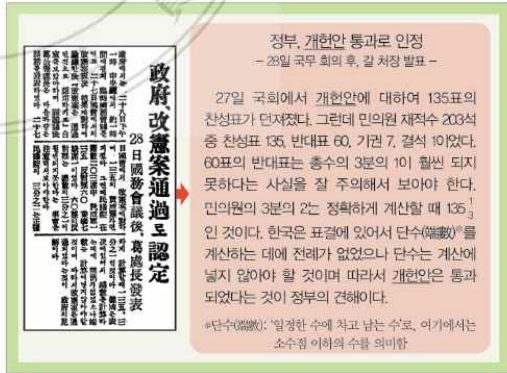
③ 안중근(1879~1910)은 우리나라 침략에 앞장섰던 을사조약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에서 사살하였다(1909.10).

④ 지청천(1888~1957)은 1930년대 초 북만주에서 한국 독립군의 사령관으로 중국군과 연합하여 쌍성보 전투, 사도하자 전투, 대전자령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파하였다.

⑤ 일제의 항복 직전 여운형(1886~1947)은 조선건국동맹을 결성하여 일제의 패망과 광복을 준비하였다(1944).

46. 밑줄 그은 '개헌안'의 시행 결과로 옳은 것은?

[2점]



- ① 대통령 중심제가 의원 내각제로 바뀌었다.
- ②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 ③ 개헌 당시의 대통령에 한하여 중임 제한이 철폐되었다.
- ④ 선거인단이 선출하는 7년 단임의 대통령제가 실시되었다.
- ⑤ 우리나라 최초의 보통 선거인 5·10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정답: ③

* 사사오입 개헌(1954)

1954년 5월, 제3대 국회의 민의원 선거에서는 관권의 개입으로 자유당이 압승하였다. 본래 2차 개헌(발췌개헌)에 따라 양원(참의원, 민의원) 선거가 있어야 하나 6·25 전쟁 직후 국내 정세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참의원 선거는 치르지 않았다.

이승만과 자유당은 권력을 계속 장악하기 위해 초대 대통령(당시 대통령)에 한해 중임(重任) 제한을 철폐하자는 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국회는 야당의 격렬한 반대 속에서 이를 부결시켰으나, 자유당은 부결이틀 만에 사사오입의 논리를 내세워 가결을 선언하였다(2차 개헌: 1954.11).

① 4.19 시민혁명 직후인 1960년 6월의 3차 개헌을 통해 대통령 중심제에서 의원내각제로 바뀌었다.

② 박정희 정권의 유신 헌법(1972.10, 7차 개헌)은 통일주체국민회의(35조에 규정한 헌법 기구)에서 토론 없이 무기명투표로 대통령을 선출(대통령 임기 6년, 연임 제한 없음)케 하였다(간선제).

④ 전두환 신군부 하의 1980년 8차 개헌은, 대통령의 임기를 7년 단임으로 하고, 대통령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간접 선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⑤ 1948년 2월 유엔 소총회의 결의에 따라 남한만의 단독 선거가 결정되어 5월 10일, 우리나라 최초의 보통선거가 실시되어 제헌 국회의원을 선출하였다.

47. (가), (나) 문서가 작성된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3점]

(가)

1. 무상 원조에 대해 한국 측은 3억 5천만 달러, 일본 측은 2억 5천만 달러를 주장한 바 3억 달러를 10년에 걸쳐 공여하는 조건으로 양측 수뇌에게 건의함

⋮

3. 수출입 은행 처분에 대해 양측 합의에 따라 국교 정상화 이전이라도 협력하도록 추진할 것을 양측 수뇌에게 건의함

(나)

제1조 양 체약 당사국 간에 외교 및 영사 관계를 수립한다.

제2조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 제국과 일본 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

- 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되었다.
- ② 6·3 시위가 전개되고 비상 계엄령이 선포되었다.
- ③ 경찰이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를 습격하였다.
- ④ 평화 통일론을 주장한 진보당의 조봉암이 구속되었다.
- ⑤ 유상 매수, 유상 분배 원칙의 농지 개혁법이 제정되었다.

정답: ②

김종필-오히라 각서(1962)와 브라운 각서(1966) 작성 사이의 역사적 사실

김종필-오히라 각서: 1962년 11월 김종필 중앙정보부장과 오히라 마사요시 일본 외상 간에 일본이 한국에 무상으로 3억 달러를 10년간 지불하는 동시에 정부차관 2억 달러를 연리 3.5%, 7년 거치 20년 상환조건으로 제공하며 1억 달러 이상의 상업차관을 제공한다는 소위 '김·오히라 메모'를 작성하여, 청구권 문제의 해결원칙에 합의를 보았다.

브라운 각서: 1966년 3월 미정부가 한국군 월남 증파의 선행조건에 대한 양해사항을 당시의 주한 미국대사 브라운을 통하여 한국 정부에 전달한 공식 통고서. 주요 내용은, 한국방위태세의 강화, 국군 전반의 실질적 장비현대화, 보충병력의 확충, 증파비 부담, 북괴의 남파간첩을 봉쇄하기 위한 지원과 협조, 대한군사원조 이관의 중지, 미국 국제개발처(AID) 차관 제공, 대월남 물자 및 용역의 한국조달, 장병의 처우 개선 문제 등이었다

① 휴전협정 체결(1953.7) 직후 어떠한 외부의 침략에도 상호협조하고 대항한다는 내용의 한미상호방위조약(1953.10)을 체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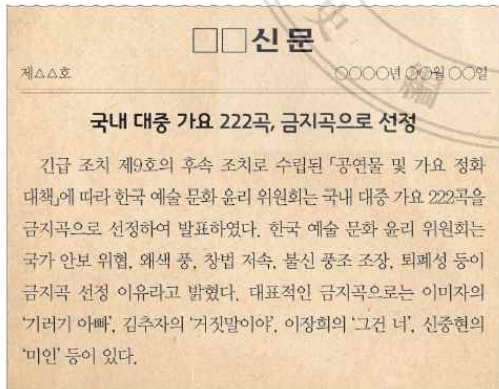
② 박정희 정부의 한일국교 정상화과정에서 굴욕적 한일협정 회담에 분노한 학생과 시민들의 반대 시위가 있자, 서울에 계엄령이 발동되는 6.3 사태(1964)가 발발하였다.

③ 이승만 정부는 반민특위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반민특위를 주도하던 김약수 등 국회의원들을 공산당과 연결되었다는 구실로 구속하고(국회 프락치 사건), 경찰은 반민특위 사무실을 습격하여 서류를 압수하고 직원을 연행하기도 하였다(1949. 6).

④ 이승만 정부와 자유당은 진보당과 당수 조봉암을 구속, 해체(1958.1)하고, 간첩 혐의를 씌워 조봉암을 전격 처형하였다(1959.7)

⑤ 1950년대에 제헌국회와 이승만 정부는 개혁을 요구하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농지개혁법을 제정(1949.6)하여 3정보 상한에 유상매수, 유상 분배를 원칙으로 하는 농지개혁이 실시되었다(1950~1957).

48. 다음 기사 내용이 보도된 정부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경기장에서 프로 축구를 관람하는 회사원
- ② 개성 공단 착공식에 참석하고 있는 공무원
- ③ 금융 실명제에 따라 신분증을 요구하는 은행 직원
- ④ 거리에서 자를 들고 미니 스커트를 단속하는 경찰
- ⑤ 외환 위기 극복을 위한 금 모으기 운동에 참여하는 학생

정답: ④

* 유신 체제 시기(1970년대)의 사회상

1967년 선거에서 재선된 박정희는 3선 개헌을 강행하였고(1969), 1972년에 비상 계엄을 선포하여 국회를 해산하였으며, 10월 유신을 단행하였다. 10월 유신은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명분을 내세웠으나, 민주적 헌정 체제를 부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면서 장기적인 독재 체제를 구축한 것이었다.

당시 정부는 유신 체제를 부정하고 헌법을 비방하거나 개정을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는 '긴급조치'를 1호(1974.1)에서 9호(1975.5)까지 잇따라 발표하였다. 그러나 양심적 지식인, 학생, 종교인 등은 이에 저항하며 민주화를 요구하였다.

또한 이 시기의 정부는 대중 문화와 국민의 일상에 대한 통제.억압하였다. 노래나 문학 작품, 영화 등을 검열하여 조금이라도 저항적 분위기를 담고있거나, 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판단되면 금지곡, 금지로 지정하였고, 영화는 해당 부분을 삭제하였다. 그 속에는 정권의 안정을 통해 장기 독재를 추구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었다.

일상에서는 장발 단속을 하여 머리카락이 긴 청년들은 거리에서 경찰을 만나면 장발 단속을 피해 도망쳐야 했다. 경찰에 잡힐 경우에는 즉석에서 머리카락이 쥐가 파먹은 모양으로 잘리고, 경범죄로 벌금까지 물어야 했다. 젊은 여성들도 치마도 길이를 재서 15cm가 넘으면 경범죄를 적용하여 단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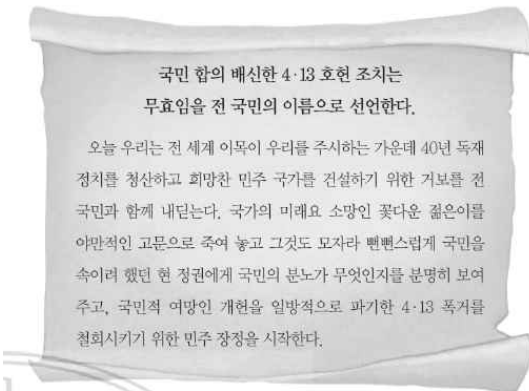
① 1980년대 전두환 정부 시기에는 프로야구(1982), 프로축구(1983) 등이 출범하여 지금까지 큰 인기를 얻고 있다.

② 노무현 정부는 김대중 정부의 통일 정책을 이어받아 개성공단 조성하였다.(2003년 착공, 2004년 입주),

③ 김영삼 정부는 탈세와 부정부패를 뿌리뽑기 위해 금융 실명제를 실시하였다(1993).

⑤ 김대중 정부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금모으기 운동 등을 통해 IMF 관리체제를 조기에 극복하였다.

49. 다음 선언문을 발표한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장면 내각이 출범하는 배경이 되었다.
- ②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이끌어 냈다.
- ③ 3·15 부정 선거에 항의하는 시위에서 시작되었다.
- ④ 신군부의 비상 계엄 확대가 원인이 되어 일어났다.
- ⑤ 3·1 민주 구국 선언을 통해 긴급 조치 철폐 등을 요구하였다.

정답: ②

* 6월 민주 항쟁

전두환 정부의 강압적인 통치하에서도 계속된 민주화 요구는, 1987년 박종철 고문 사망 사건과 4·13 호헌 조치(대통령 간선제 고수)를 계기로 6월 민주 항쟁으로 발전하였다.

호헌 철폐와 독재 타도를 외치며 직선제 개헌과 민주 헌법 제정을 요구하는 이 시위는 연세대생 이한열의 사망으로 더욱 격화되어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결국, 정부는 국민의 민주화 요구를 수용하여 6·29 민주화 선언을 발표하였고(당대표 노태우 발표), 여야 합의에 의해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새 헌법이 마련되었다(현행 헌법).

①, ③ 1960년 3.15 정.부통령 부정선거가 원인이 되어 발발한 4.19 시민혁명으로 결국 이승만 정권은 붕괴하고, 내각책임제 개헌 후 장면 내각이 출범하였다(1960.8).

④ 1980년 전두환, 노태우가 이끄는 신군부의 5.17 비상계엄 확대가 원인이 되어 일어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계엄군의 잔혹한 진압으로 수백 명이 희생되었다.

⑤ 박정희 정부의 유신 체제에 반대하여 재야 정치인, 종교인, 대학 교수 등은 긴급조치 철폐 등을 요구하는 3.1 구국 선언(1976)을 발표하였다.

50. 다음 경축사를 발표한 정부 시기의 통일 노력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남북 기본 합의를 교환하였다.
- ② 7·4 남북 공동 성명을 발표하였다.
- ③ 10·4 남북 공동 선언을 채택하였다.
- ④ 금강산 해로 관광 사업을 시작하였다.
- ⑤ 최초의 이산가족 고향 방문을 실현하였다.

정답: ①

* 노태우 정부의 통일 노력

1970년대에 들어와 닉슨 독트린(1969, 미국의 불개입주의 천명) 발표 이후 냉전 체제의 완화, 남한의 경제 발전 등 국내외 여건의 변화에 따라 박정희 정부는 남북 교류를 제의하고(1970년 8.15. 선언, 남북한 선의의 경쟁), 남북 간에 이산가족 찾기 운동을 위한 적십자 대표의 예비회담을 열었고(1971.9~1972.8). 또, 서울과 평양에서 7·4 남북 공동 성명이 동시에 발표되었다(1972). 이 성명은 분단 이후 처음으로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통일 원칙을 내세운 것으로, 이후 통일 논의의 기본 원칙이 되었다. 이 발표로 남북 관계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어 직통전화(하타인) 가설과 남북 조절 위원회가 설치되기도 하였다.

1980년대에는 전두환 정부의 민족화합 민주 통일 방안(1982.1)과 북한의 고려 민주주의 연방공화국 방안(1980)이 제시되었으며, 남북한의 이산가족 고향방문단이 각각 서울과 평양을 처음으로 방문하였다(1985. 9.).

노태우 정부(1988.2~1993.2) 때인 1990년대에 들어와 급격한 국제 정세의 변화 속에서 적극적인 북방외교가 추진되어 소련(1990), 중국(1992) 등과 수교하였고, 남북한은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였으며(1991.8),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리고, 문화, 체육의 교류도 이루어졌다. 곧이어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되고(남북 기본합의서, 1991.12),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 선언이 채택되기도 하였다.

김영삼 정부는 북핵위기 속에 남북정상회담에 합의했으나 김일성 사망으로 무산되었고(1994.7), 화해와 협력, 남북 연합, 통일 국가의 '한민족 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 방안'을 제시하였다(1994.8). 그리고 북한이 수재로 식량난을 겪자 쌀을 무상 지원하였으며, 북한의 핵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1995년 경수로 원자력 발전소 건설 사업을 추진하였다(2006년 이후 중단).

1998년에 김대중 정부(1998.2~2003.2)가 들어선 이후 정부와 민간 차원의 교류가 크게 확대되었다. 민간 차원에서 현대 정주영 회장이 소떼 500마리를 이끌고 방북한 것을 기점으로 금강산 관광(해로)이 이어졌다(1998). 그리고 마침내 평양에서 정상 회담이 이루어져 6·15 남북 공동 선언이 발표되었다(2000). 또, 개성공단 건설, 경의선 연결, 남북 이산가족 상봉 등이 실현되었다.

노무현 정부(2003.2~2008.2)는 김대중 정부의 통일 정책을 이어받아 개성공단 입주(2004년), 금강산 육로 관광이 시작되었고(2003년 9월), 2007년 10월 4일 평양에서 남북 정상 회담이 개최되어 6·15공동선언의 적극 구현,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한 3자 또는 4자 정상회담 추진, 남북 경제협력사업의 적극 활성화, 이산가족 상봉 확대 등을 골자로 하였다.